

# 독서를 배우다

배움에 미치다

정희일 지음

직·간접적으로 만나온 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마음으로 썼습니다.



## 50만 부의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 저자, 정회일

아토피로 인한 스테로이드제 처방을 끊고 난 후 5년 간 밖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부모님의 수억 원 빚까지 있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그를 살린 것은 '독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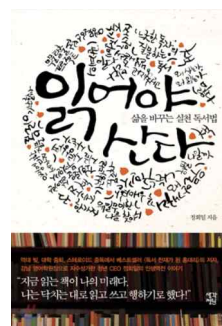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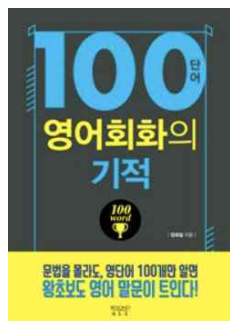
비전공, 비연수로 6개월 만에 독학으로 영어강의를 시작해 한국인이 해외 어학연수를 가지 않고도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했다. 혼자서 한 달에 100명 넘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시작한 영어강의로 강남에서 (주)영나한 (영어연수, 나는 한국에 한다)을 운영하며 역대 연봉의 스타 강사가 된 후, 다른 한국인 초보 학생들을 강사로 만들어 오고 있다.

현재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며 남을 기쁘게 하면 부자가 된다는 네이버 카페 '꿈행부기'를 운영하며 독서코칭프로그램 등을 통해 역대 기부자를 양성 중이다. 해외 우물 파기, 도서관 짓기, 탈북자 구출 모금 등에 이미 수억 원을 기부했다. 꿈을 위해 절실히 노력하는 사람들과 배움을 나누면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일하는 삶을 꿈꾼다.

<https://www.instagram.com/singwnu>

## 〈주요 저서〉

-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1
- 읽어야 산다
- 10년째 안 되는 영어 말문, 나는 한국에서 튼다!
- 영어 피트니스 50일의 기적
- 100단어 영어회화의 기적 <http://www.yes24.com/Product/Goods/44381276>
- 마음에 불을 <http://www.yes24.com/Product/Goods/89494201>



## <목차>

### \* 승마를 독서로 배운다?

- 배우기를 좋아하세요? (배우다)

### 1. 왜 책인가?

- 1) 배움의 3가지 방법
- 2) 10년 걸려 깨달은 책에 대한 3가지

### 2. 책 읽어도 안 되던데?

- 1) 성장하는 독서의 5단계
- 2) 좋은 실용서를 찾는 법 ( ~ 하는 법)
- 3) 독자를 위해 쓴 책을 찾으세요. (작가 자신을 위해 쓴 책이 아닌)
- 4) 안 맞는 사람 있듯, 안 맞는 책도 있어요. 한두 번 찾고 포기 말아요.
- 5) 책과 현실은 다르다?
- 6) 문행결 : 생각과 행동과의 간격이 성장을 결정한다.

### 3. 왜 안 읽어지나? (습관 잡기)

- 1) 약속을 정해야 사람을 만나지
- 2) 저자가 직접 읽어준다 생각해 보세요.
- 3) 단번에 월 20권 독서가가 되는 방법
- 4) 당신의 생각력은 충분한가요?
- 5) 문자와 익숙해지기
- 6) 집중력 키우기 (속독? 정독?)

#### 4. 어떻게 읽을까?

- 1) 독서 습관
- 2) 메모를 해? 말아?
- 3) 비판 말고 일단 배우기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 4) 비판과 비난과 조언
- 5) 콩나물 키우기 처럼! (읽어도 잊는데요?!)
- 6) THX 독서법 ( T 독서, I 독서의 연장)

#### 5. 무엇을 읽을까

- 인생 기본 분야별 집중화 독서. 2달 20권의 기적! 20 권
- 왜 두 달 20권인가?
- 1) 성공자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해낸 사람)
- 2) 인생, 죽음, 꿈
- 3) 시간 관리
- 4) 행복한 부자
- 5) 일 잘하는 법 \* 1달 10권 가능한가?
- 6) 각 직업별 추천 분야

#### 6. 독서후..!

- 1) 시즌1 독서(10달 100권) 에 읽어야 할 책들
- 2) 독서의 절반은 독자가 만드는 것! 생각하고 행동하기!
- 3) 재독의 힘을 깨닫는다면!?
- 4) 저자를 만나보지 않으면 반쪽 배움
- 5) 인생에 고통은 왜 있는가?

- 책을 읽는다는 것은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다. 책을 읽지 않으니 경험이 축적되지 않고  
경험이 없으니 일을 잘 할 턱이 없다 - 정조대왕-

## 승마를 독서로 배운다?

‘들판에서 말타고 달리기!’는 제 버킷리스트 (인생에서 하고픈 일을 적어놓은 것)의 목록 중 하나였습니다. 버킷리스트를 종종 보며 하나씩 이뤄내 나가던 중, ‘이거 도대체 언제 하지? 말 타는거 바로 해볼 수 있지 않아?’ 생각이 들어 검색해보고 무료 체험을 찾아냈지요. 떨리는 마음으로 차로 단지 20분 거리에 있는 승마장에 도착했습니다. 직접 가보니 말 냄새도 나고, 소리도 들리고 긴장되며 ‘또 하나의 꿈을 이루는구나!!’ 생각에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도구를 착용하고 교관님이 간단한 교육을 해줬습니다.

승마 규칙 (예시)

- 1) 다리로 말의 허리를 조르면(?) 말은 속도를 냅니다.
- 2) 고삐를 당기면 말이 속도를 줄입니다.
- 3) 말은 선천적으로 겁이 많으니 소리를 지르거나 흥분하면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나 정확히 기억하진 않지만 저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에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높은 높이여서 당황했지만 너무 신나고 기분 좋았습니다. 말이 걷기 시작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익숙해지자 지시에 따라 살짝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TV에서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TV에선 배우들이 멋지게 팔도 벌리며 말을 타는데, 직접 해보니 말 높이가 너무 높아서 떨어지면 다치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겁이 나서 다리로 말을 조르게 되고 말은 속도를 더 냅니다. 그러니 말 위에서 저는 더욱 더 불안해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 야~~ 달리지 마 달리지 마!! 나 떨어져 멈춰 멈춰!!’ 말이 놀라서 더 달리고 교관님도 놀라서 뛰어옵니다...

저의 첫 말타기는 이런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날로 집에 와서 버킷리스트에서 ‘말타고 달리기’를 지웁니다. 들판을 달리려다 죽어서 다른걸 못 하겠더라고요. 승마를 독서로 배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까요?

세상에 수 많은 사람들 중에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동물과 교감을 잘 하는 등의 재능이 있는 사람은 누구의 도움 없이 말타기를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인류가 처음부터 말을 탔을까요? 누군가 타기 시작했고 타보니 좋고, 그 노하우를 전하다 보니 말 안장 등의 도구도 정착화되고, 고삐가 생기고, 이랴~ 등의 언어도 생겼겠죠. 어느 정도 형식화가 되니 그걸 교관분들이 교육하고 그에 맞추어 배우는 것이겠지요. 혹시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는 교관이 있을수 있지요. 그럼 다른 맞는 교관을 찾아 배우는 것이 낫지 혼자 익히는 것을 누군가는 하겠지만 쉽지 않지요.

위의 승마 규칙도 그렇습니다. 저런 노하우가 조금 더 양이 모이면 책으로 만들게 되는 것일거고, 그 책에 담긴 내용은 보편적으로 참고할 내용이 될 겁니다. 물론 어떤 말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흥분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람과 상황마다 흥분할 수도 있지요. 승마 규칙 (노하우)를 정리하는데 세상 모든 돌발 상황을 다 넣기엔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미리 경험한 사람이 정리해둔 내용임은 맞습니다. 나와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맞지 않는다고 그 노하우를 무시하고 '내가 알아서 말 타기를 배우겠다' 하면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거나 말타기를 못 배울 확률이 높겠지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저자마다 노하우와 책 정리 방식이 다르고, 지면상 모든 개인에게 맞는 내용만을 적을 수 없다보니 각 개인이 읽을 때 조금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책을 외면해 버리면 이전에 해 본 이들의 모든 노하우를 버리게 됩니다. 이 책은 인생에서의 승마 규칙, 즉 삶의 노하우(=책)를 잘 배우는 법에 대한 책입니다.

## - 배우기를 좋아하세요?

논어의 맨 처음에 '사람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논어를 반복해 읽던 저는 어느날 '배우다' 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몇 달간 고민하던 중 '아! 배운다는 것은 학교에서만 쓰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살면서 우리는 계속 배우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에게서 배우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이 생각을 하니 '배우기'에 대한 생각이 확장되었습니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이의 장점을 많이 볼까, 단점을 많이 볼까?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을 많이 만나러 다닐까, 아닐까? 책을 많이 읽을까, 아닐까? 뭔가 지혜로운 생각에 귀를 기울일까, 아닐까?, 메모를 할까, 안 할까?'. 이런 것들이 다 '배우기'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논어를 더 읽다 보니 계속 공자님이 '배우기' 에 대해 강조하신 것도 보였고,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신 것도 보였습니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아랫 사람에게도 잘 묻는다.. 등등 여러 '배움' 에 대한 내용이 논어에 나오지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정말 적은 것이었고 사실 능동적으로 내가 궁금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입식 암기에 가까워서 그렇게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교 왜 다니세요?' 질문하면 '취직하고 돈 벌어 결혼하려고..'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저는 '그럼 학교에서 돈 버는법, 모으는 법 알려주나요? 이상형 찾고 연애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 하는 법 알려주나요?', '그걸 안 알려주는데 학교에 왜 다니죠?' 류의 질문을 하면서 배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곤 하지요.

이런 설문 조사가 있었어요 ( 우리가 후회하는 것 <http://cafe.daum.net/realstarteng/lizw/48> )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후회하는 것은 '더 공부할 걸..' 이 상위권에 있죠. 저는 여기서 '공부'라는 단어가 사실 사람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라고 생각해요. 전 이제 배우기를 꽤나 좋아한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학교 공부는 하기 싫거든요. 중고교에서 국어를 6년 배우고 나면 책도 안 읽고 발표도 못 하고, 글도 못 쓰고, 영어를 6년 배우고 나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왜 외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국사를 무조건 외워야 하고요. 다른 분들도 '공부'와 '배움'이라는 단어를 혼동하고 있거나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라면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잘못된 교육을 받다 보니 '배움'에 대한 이미지가 흔들리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이 글에서 책에 대해 많이 나누긴 하겠지만, 사실 '배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제 무지를 깨닫고 나서 진짜 배움을 시작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전 제 나이를 11살이라고 생각해요. 육체 나이보다 배운 나이가 중요하더라고요. 배우지 않으면 나이를 먹어도 나이 먹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제가 배워온 것들은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법

-무엇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

그리고, 삶의 고통을 다루는 법, 실수의 의미,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법, 강아지를 키우는 법, 식물을 관리하는 법, 웃기는 법, 스파이가 되는 법, 부자가 되는 법, 나쁜 부자, 선한 부자, 다른 이를 돕는 법, 돈을 모으는 법, 돈을 불리는 법, 꿈을 찾는 법, 옷을 잘 입는 법, 부동산에 투자하는 법, 펀드 투자하는 법, 연애하는 법, 행복한 결혼 생활,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법, 직장 동료와 협업 하는 법 등등... (조금만 배운 것도 있고, 실천 안 한 것들도 있습니다 :)

이런 것들을 일일이 직접 시행착오 겪어 배우긴 오래 걸리겠죠? 저도 그래서 직접 경험도 많이 하되 간접 경험을 활용했습니다. 덕분에 수년간 투병을 해서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했지만, 조금 빠르게 성장한 것 같아요. 제가 배움에 대해 11년간 배워온 것들 중 아끼는 것을 나누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은 너무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같이 배움에 대해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바랍니다.

## 1. 왜 책인가?

### 1) 배움의 3가지 방법

제가 지금까지 배워오기론 배우는 방법에는 사람, 강의, 책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좋을까요? 독서 특강에 가서 청중에게 물으면 '책'이라 답하시기도 하는데요. 자,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님, 미국의 링컨 대통령, 스티브 잡스 등을 직접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책으로 만나길 원하세요? 당연히 직접 아닐까요? 만나서 배우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 마윈, 저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쉽지 않지요. 이렇게, 직접 만나기엔 돌아가셔서 못 만나거나, 멀리 있거나, 아니면 만나려면 큰 돈을 내야 하거나 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도 있지요. 사실 만난다 해도 내가 듣고픈 이야기를 그 사람이 일일이 다 해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분 일수도 있고요. 강의나 책은 어느 정도 정리, 관리가 되어 있지만 사람은 그

렇지 않으니 단점 등이 보여서 실망하기도 하지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같은 환상이지만요). 만나기가 쉽지 않아 못 만나건, 본인이 행동하지 않아 안 만나건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우리는 부모님이나, 직장, 학교 선배정도에게서만 배우게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의 크기로 우리는 만들어지니, 딱 그만한 세계에서 살고 생각하게 되므로 할 수 있는 한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데 노력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둘째로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란 건 일대다의 품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일반 대학생 한 명이 기업가, 유명작가등을 부르면 성사되지 않지만, 사람이 여럿 모이거나, 금전이나 선물등의 조건이 붙으면 강의를 형성되지요. 그래서 일대다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그래도 직접 접하게 되는 기회가 되지요. 강의의 장단점은 책과 사람의 중간 정도가 됩니다. 책보다 더 현실감 느껴지지만 직접 만나기 보단 덜 하고요. 직접 얘기 듣는 거보다 좀 더 정리되어 있지만 책보단 덜 해서 전달력이 떨어지기도 하지요. 말을 잘 하는 분의 경우엔 더 낫기도 하고요. 책을 읽을땐 저자에게 질문할수 없지만 강의에선 기회를 만들수도 있지요. 직접 나눌때만큼 독점은 안되지만요.

**셋째로 책입니다.** 일단 책 자체로 볼 땐, 이건 물질이어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서도 볼 수 있고, 잠옷 입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연자를 3분만 만나고 가버리면 당황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책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잠깐만 보고 나중에 보거나 다른 책을 볼 수도 있어요. 서점에서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저자들 수천명이 앉아서 우리와 대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자가 안녕하세요~ 말 거는 순간 느낌이 별로라고 그냥 다른 저자한테 가는 거죠. 이런식으로 책 자체는 사물이어서 우리가 편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대개 충분한 시간(짧게는 두 세달에서 길게는 수 십년)을 가지고 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현세대와 시차가 생기거나, 충분히 조작할 시간이 있어서 독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만 과장되게 넣거나 하는 문제도 생길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의 자료, 생각이 정리된 '책'이란 결과물을 몇 시간 들여서 접할수 있다는 점이 책의 큰 장점 중 하나지 싶습니다.

## 2) 10년 걸려 깨달은 책에 대한 3가지.

'어떻게 하면 다른 분들이 책을 더 쉽게 접하고 잘 배울 수 있게 될까?' 에 대해 10년 간 고민했습니다. 그에 대한 3가지 아이디어가 '1) 책은 마음의 거울이다 2) 책은 사람이다 3) 책은 편지다' 이지요.

### 첫째, 책은 마음의 거울이다.

많은 분들이 책에 나오는 좋은 문구들이 뻔하다며, 그거 누가 모르냐고 실천이 어렵지 말씀을 하길래 그걸 바꿔보려고 고민하다 떠오른 생각이에요.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 몸단장을 하고 거울을 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은 거울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나'입니다. '나' 보기 위해 거울을 보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책에 나오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될 때까지 해라.', '묻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마라' 이런 문장들 자체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문장(거울)을 보고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나는 오늘, 이 순간 착하게 살고 있는가?’, ‘더 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의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문장만 보고 지나가면 거울 자체만 보고 지나치는 것과 같은 거지요. 여러분의 친구가 매일 ‘거울 자체’만 바라보고 있거나, 거울을 보며 비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거울은 너무 디자인이 별로야, 잘 비치질 않아, 거울이 깨끗하지가 않아’ 그럼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 친구야, 거울은 널 비춰보라고 있는 거야. 거울이 지저분하면 닦아야지 거울 탓만 하고 있어서 뭐해?’ 그런데 그게 많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거울(책)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나에 대해 생각하지는 않고 거울(책)을 보고만 있거나 비판하기만 하지요. 대개의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난 뒤에 느낌(독후감)을 적고, 책을 산 뒤에 ‘평’을 남기는 식만 해와서 ‘자기반성’하는 연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 너무나도 자기 반성을 안 하고 남 비판, 평에 집중화 연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론 수십 년을 책을 봐도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책은 생각 거리를 얻기 위해 읽는 겁니다. 책을 읽고도 자기 반성,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거울을 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상태가 이상한 지 모르고 있겠지요.

###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 -논어-**

(여기서 말하는 책은 지식, 정보성의 책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우리를 성장시키는 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누가 모르나? 실천이 어렵지.’ 등의 부정적 생각이나 비판적 생각은 생각으로 치지 않습니다. 건설적인 생각,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류의 생각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도 필요하지만 어느정도 자기 발전이 되고 나서 하는 게 낫습니다. )

### **둘째, 책은 사람이다.**

둘째로 책은 사람입니다.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하고, 생각을 시작하고, 몇 년 뒤엔 저자를 만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 저자를 만나면 무척 신기했습니다. TV에서 보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 신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책을 통해서 생각을 접했던 사람을 직접 보니 신기했습니다. 직접 보고 실망한 적도 있었고, 더 좋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한참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 습니다. ‘아! 사람이 곧 책이구나. 사람이 책을 쓴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는 책을 볼 때 그 저자가 나를 위해 이 책을 썼다 생각하고, 내 앞에서 말해주고 있다고 상상하며 읽었습니다. 그러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책이 곧 사람임을 모를 때 우리는 집중도 안 하게 되고, 잘 안 보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난중일기를 읽을 때 ‘아 지루해’ 할 수 있을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을 만나서 ‘그 날 어떠셨습니까?’ 물어서 답변을 들을 때 우리가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책을 쓴 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 책은 사람인 것을 모르니 책을 덜 접하고, 집중도 덜 하게 됩니다.

‘책은 나랑 안 맞아’ 생각하신다면, 아마 맞는 책을 아직 못 만나서 그럴겁니다. 사람이 다양하듯, 책도 다양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내용이지만 지루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반성은 안 하고 잔소리만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옳은 말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은 짧게 하지만 그 말에 깊은 생각이 담긴 사람도 있지요. 책도 마찬가지로 애깁니다. 맞는 책을 찾게 되고, 나아가 잘 배우는 법을 배우게 되면 다양한 사람(책)을 만나는 것에 빠지게 될 겁니다. 책이 곧 사람입니다. (글자로 접하는 것 때문에 책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선 뒤에서 다룹니다.)

생각해 보세요. 출퇴근, 등교길에 친구나 동료와 반복되는 잡담만 하거나, 그들과(나와 비슷한 레벨) 인생에 있어 중요한 질문들 '너는 어떻게 살 거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번 일 어떻게 해야 하지?'을 나누는 것일까요. 그에 비해 출퇴근 길에 내 인생에 있어 중요한 대화들을 링컨, 세종대왕님, 스티브 잡스, 독서법 전문가, 건강 전문가, 재테크 전문가, 마음관리 전문가 등과 나누는 것. 어느게 더 즐겁고 유익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과 닮아갑니다. 매일 매일 이것이 반복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 셋째, 책은 편지다

우리나라의 독서인구는 약 500만이라 합니다. 10명중 한 명만이 책을 읽고, 나머지는 책을 거의 보지 않는다고 해요. 월 평균 독서량이 0.8권입니다. 한 달에 한 권을 잘 읽지 않아요. 사실 이 독서에도 입시 서적, 만화, 흥미 위주 소설이 포함되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안 읽는 거지요. 참고로 일본의 월 평균 5권 독서량은 6권 정도입니다. 일본을 욕하는 시간에, 그들의 배우는 양에 비교해서 반성하고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책을 잘 보지 않아요. 그런데 책은 안 보는 사람도 대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 연인, 부모님이 긴 카톡을 보내면 그걸 읽어보겠조? 아끼는 내용이라면 여러번 읽어볼 겁니다. 책은 결국 긴 문자이자, 긴 편지입니다. 나에게 도움 될 만한 내용을 나를 생각하는 어떤 전문가, 현인이 써 둔거예요. 나를 위해 우리 부모님이 인생의 지혜를 긴 편지에 담아 보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는 그 편지를 읽어보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실제로 율곡 이이 선생님의 격몽요결이란 책을 보면, '내가 일일이 다 만나 알려줄 수 없어서 이런 편지(사람답게 사는 법, 효도하는 법, 일을 잘 하는 법)를 쓰니 두루 읽어 잘 실천하거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들은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혹 접해도 한 두 번 읽다 말고 그냥 살아갑니다. 이이 선생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책은 편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내가 배웠으면 하는 내용을 정리해둔 거예요. 책을 한 권 쓰기 위해선 적어도 20권 이상의 책을 접해야 합니다. 좋은 책의 경우엔 수 백권, 수 천권 이상의 지식과 지혜가 담기기도 하고, 수 년에서 수 십년 이상 생각한 것들이 담기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들도 수 천권의 독서를 바탕으로 수 년간 스스로 더욱 생각하고 답을 찾아 온 것이고요.

책을 접할 때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이것 저것 적은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아끼는 이'가 '나'를 위해 썼다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독자님들 중에 저를 만난 뒤에 제 책을 접하면 책을 읽을 때 제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인거죠. 아직 절 만나지 못하신 독자님들도 이미 절 만난 적 있다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더 도움 되실거예요. 운전하다 뒤에서 어떤 차가 내 차를 콕!! 들이받았다 쳐요. 확! 화가 나서 따지려고 보니 뒷 차 운전자가 내 친한 친구라면! 전혀 모르는 사람일

때와는 다른 식으로 태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저와 독자님 대부분은 단지 '아직' 만나진 않은 사이일 뿐이에요. 제가 먼저 편지를 보낸거예요. 답장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장으론 평이나 감상문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배우고 '실천한 점'을 적어주시면 너무 기쁠거예요!

## 2. 책 읽어도 안 되던데?

'책 읽어도 안 되더라'하는 경우를 정리해 보면 대개 1) 그냥 주위에서 그런 소리만 듣고 해보지도 않은 경우 2) 책을 읽기만 한 경우 3)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경우 4) 한 두번 해보고 포기하고 있는 경우. 대개 이 정도 선에 있을거예요. 아래 내용에서 답을 찾으실거라 생각합니다.

### 1) 성장하는 독서의 5단계

1-2) 책에 대한 3가지 깨달음 (거울, 사람, 책) 에 이어 계속 많은 생각을 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찾아낸 독서의 단계 5가지를 나눠볼게요. 책을 접하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지요. 독서량도 중요하지만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아래의 1}, 2} 독서법으로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긍정적 변화는 없습니다.

**1} 평하는 독서 :** 책을 읽고 나서 평하는 독서입니다. 글투가 어땠다던지, 오타가 많다던지, 저자의 수준이 어떤거 같다던지.. 등등 그렇게 평한다고 평이 저자에게 전달 되는 경우도 별로 없고, 평 하면서 잠시 본인이 평할 만한 괜찮은 존재라고 느낄 순 있겠지만 착각이지요. 서평 문화때문에 참 평들을 많이 하는 데 아무튼 별 의미 없습니다. 별로인 것 같으면 본인이 더 좋은 책을 써 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그래서 '책은 이렇게 쓰는 거다' 알려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든 사람에게 평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본인은 뛰어들지 않았잖아요. 독서토론도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아무리 책 읽고 토론한다한 들 삶에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2} 보는 독서 :** 책을 읽고 나서 그냥 끝인 독서입니다. '좋았어요.' 정도 한 두마디 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냥 남의 세상 보듯, TV에 비추어진 무서운 호랑이를 보듯 그냥 보고만 있는 독서입니다. TV에서 호랑이를 보는 것과 직접 눈 앞에서 보는 것은 다르겠죠? 생긴 것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직접 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보는 독서만 해 왔다면 반쪽 경험을 하고 있는거예요. 한 번 보고 말기 때문에 책의 내용에 대해 별로 기억하는 것도 없습니다. 영화를 한 번 보면 스토리 흐름 정도는 기억하겠지만 대사들을 일일이 기억할 순 없겠죠? 대사들을 기억할 정도로 집중하거나 여러번 봐야 연기를 훑내낼 정도라도 되는 거지요.

**3} 아는 독서 :** 책의 내용에 대해 잘 아는 독서입니다. 주로 강사 등의 지식 전달자나, 자랑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합니다. 시험 공부할 때 책 한 번 읽고 내용을 '안다' 하진 않지요? 안 거 같은데 답안지에 '출력'하려면 기억이 안나죠? 그래서 여러번 봐야 합니다. 10번 봐도 모자란 경우가 많지요. 그

래도 책을 쓴 저자에 비해선 적은 노력양으로 정보를 얻는 작업이지요. 다른 이에게 대략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합니다. 공부법, 독서법을 다루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서 '출력'을 목표로, 정보를 접하라 합니다. 그래야 잘 기억하니까요. 이렇게 읽지 않으면 대부분 잊게 마련입니다. 3} 아는 독서도 저는 진짜 배움(독서)의 단계로 치지 않지만 사실 많은 경우 우리들은 3} 단계 독서도 하지 않습니다. 1}, 2} 독서만 하고 나서 '어 그 책 봤어' 하지요. 웃기는 얘기지요.

**4} 행하는 독서 :** 여기서부터 진짜 독서, 배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해보아서 직접 경험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당연히 삶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의 소크라테스 선생님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앎이 아니다' 라고 하셨고, 동양의 논어에 보면 한 제자가 '들은 것(배운 것)'이 있는데 아직 행동하지 않았으면 다른 배움을 얻기를 두려워 했다' 라는 구절이 나오죠. '행해야 함'을 강조한 구절이겠죠. 한 두번 시도에 꼭 대단하고 기대하던 대로 다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실제 상황'이니까요. 이 실제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변수들이 두려워서 적잖은 분들이 행하지 않고 그냥 TV 보듯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선 별 일 없겠지만 정말 별 일이 없겠죠.

행하기 위해선 대개 3} 아는 독서를 전제로 합니다. 메모하고 암기해서 책에 나오는 내용, 문구들을 알고 있어야 하죠. 영화 한 번 보고 나서 배우들의 연기를 똑같이 할 수 없는 것과 같지요. 책을 읽고 일일이 실천하려면 '너무 양이 많아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뒤에서 더 다루겠지만, 저자가 10년 걸려서 쓴 책이라면 1년간 실천해서 그 책의 내용을 자기화, 자기 인생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빠른 것 아닐까요?.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하나씩 해 봅시다.

**5} 창조하는 독서 :** 책에 나오는 내용을 실천해서 자기 인생에서 경험하고, 그런 경험이 많이 쌓이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거나, 더 발전시키는 단계입니다. 대개 이 정도가 되면 자신만의 책을 쓸 정도의 경험이 쌓였을 거예요. 어떤 경험이건 각 개인을 만나면 그 사람만의 경험이 되므로 그 사람만의 새로운 세상일테니까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많이 실천하셔서 자신만의 경험을 하시고 나서 이 책을 다시 보시면 느낌이 많이 다를거예요. 전 생각(행동)거리만을 드리고 있습니다. 행동하시고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독자님 몫이지요.

위 5단계를 설명하는데 1페이지 정도 분량이 들었지만, 각 단계 사이엔 인생에서 정말 큰 변화가 생길수 있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혹 독자님이 어느 단계에 있는 지 잘 감이 안 오신다면 주위에 주로 어떤 분들이 있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린 끼리끼리 어울리니까요.

## 2) 좋은 실용서를 찾는 법 (~ 하는 법)

실용서 : 문학적 내용이나 전문적 이론이 아닌, 무엇인가 실제 익히는 방법을 다룬 '실용서' 들이 있지요. 독서법, 부자 되는 법, 정리법, 공부법, 차 관리법, 재테크 서적, 인간관계, 인테리어, 육아법 등 여러 실용서들이 있습니다. 저도 주요 분야당 100권 이상씩 여러 분야를 읽고, 일부는 실천을 했지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험하고 배우다 보니 이런 책들을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 1) 나는 이렇게 하니 되더라.

이런 책들이 문제의 소지가 많아요. 그냥 그 저자의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분이 연애편을 썼다고 쳐요. '연애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다가가서 식사를 제안하고 식사 후에 와인을 마시면서 그윽한 눈빛으로 여성을 바라본 뒤 적절히 키스를 하면 시작된다' 이런 내용이 담긴 책을 냈는데, 저자가 멋지다보니 미디어에도 알려지게 되고 자꾸 홍보 되서 베스트셀러까지 됐다고 쳐요. 그럼 많은 남성들이 이 책을 보게 될 텐데, 저 책의 내용대로 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은거죠. 식사는 커녕 말을 붙이자 마자 피한다던지,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절을 해버린다던지 책에서 알려준 대로 되질 않는거죠.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공부법 책을 쓴다던지, 낯을 안 가리는 사람이 '무조건 외국인만 보면 따라가서 말을 걸어서 영어를 익혀라' 주장하는 책을 쓴다던지 등의 오류가 담긴 책들이 꽤 많습니다. 주로 이런 책 때문에 책은 현실과 다르다는 욕(?)을 먹는 듯 합니다.

### 2) 그들은 이렇게 했다더라.

예를 들어 집 정리를 잘 하고 사는 사람들을 100명을 조사해서, 집 정리의 비결을 10가지씩 들은 뒤에 100명의 방법 중 겹치는 몇 가지를 다시 정리한 류의 책들입니다. 당연히 1)의 책보다 믿을 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조사 대상에 따라 잘못된 정보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하죠. 일반 독자들이 100명을 만나 조사할 노력을 생각하면, 저자가 대신 해주었으니 감사한거죠. 제 생각에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저자가 여러 노하우를 배운 김에 직접 실천하여 한 번 더 검증하면 낫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조사량이 되게 많다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점이지만 일단 정보를 정리한 것에 의의가 있을 책도 있지요.)

### 3) 그들은 이렇게 했다던데 나도 해보니 되더라.

이런 책은 훨씬 더 믿음이 가지요. 책을 쓰는 데 드는 노력, 열정양도 앞의 두 경우와 비교하기 힘들구요. 이런 책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일단 많이 경험해 보면서 1), 2)에 해당하는 책들에게 당해(?)보는 경험도 필요하겠지만, 책 앞의 저자 프로필이나 서문, 목차 정도를 더 유심히 읽어봄으로 알아 낼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더 잘 찾아낼 수 있겠죠.

### 4) 그들은 이렇게 했다던데 나도 해보니 됐고, 내가 주위에 전해보니 또 되더라.

이런 책은 꼭 사셔서 소장하시고 열심히 보고 행하시면 됩니다. (강조하느라 한 말이니 빌려 보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대개의 독자들에게 맞는 방법인데 독자님과 안 맞을수도 있긴 하겠죠. 계속 강조하지만 본인과 안 맞는 것인지 본인이 어리석어 못 받아 들이는 것인지는 현명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각 분야마다 이런 책을 찾아두면 좋습니다. 그렇게 실천해서 자기화 하면 정말 다른 이들의 시행착오로부터 효율적으로 배우는 것이 되겠죠. 물론 이런 경우에도 지면의 한계 때문에 과정이 일부 생략되던지 등의 요건이 생겨서 책 내용과 실제 삶에서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큰 방향에선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 2-3) 독자를 위해 쓴 책을 찾으세요.

이것도 제가 배움을 시작한 지 7~8년은 지나서 배운 것이예요. 책을 쓸 때 저자의 어떤 의도가 있겠죠. 어떤 저자는 자신이 공부한 것을 정리하기 위해 기념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상품(사람)이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 빠르게 기획해서 더 흐름을 크게 만드려고 쓰는 책도 있죠. 자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쓰는 책도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도 그러듯). 일부 책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사기까지야 아니지만 자기 이익을 보려고 쓴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려고 쓴 책이 있지요. 앞에서 말한 이이 선생님의 '격몽요결'이란 책의 경우 '내가 살면서 필요한 지혜를 알려주고 싶는데, 일일이 찾아가서 알려주기 어려우니 대신 이 편지를 쓴다.' 이런 의도에서 알 수 있듯, 이이 선생님이 자기 이득을 보거나, 자랑을 하거나, 심심풀이로 쓴 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쓴 책이지요. 이런 책들을 잘 찾아내야 합니다. 저자도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식하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이 책을 열심히 찾아보시면서 눈을 키워야 합니다.

'책이 얼마나 읽기에 쉬운가'도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책을 주로 비판하는 분들은 친구들은 책이 너무 쉽다며 또 궁시령 되겠지만, 읽기에 쉽게 쓴 책은 독자를 아끼는 마음으로 쓴 책이지요. 어려운 용어를 많이 쓰거나, 문장에 너무 멋을 부린다거나 (멋을 부려도 좋지만 실용서에서 문학을 추구하다가 본래 취지를 놓치면 안되니까요) 하면 저자 자신은 즐겁겠지만 독자에게 도움이 안 되겠죠. 터놓고 말해서 누구나 살면서 힘든 일을 겪어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경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힘든지라 '독자(다른 이들)을 위한 눈'이 뜨이기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관찰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봐온 분들은 그랬었고요. 제가 보고 들은게 다인지라, 아직 결론 내리기엔 이르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많이 보고 들어야겠죠!)

- 책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자의 집필 의도
- 쉽게 쓰였는가
- 저자의 실제 삶은 어떠한가,
- 독자들의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독자님들이 실제 경험하시고 노하우를 쌓아보세요.

\* 위에 사업 홍보 내용이 나와서 말인데, 대개 우리는 홍보라 하면 살짝 반감을 갖기도 하는데요. 1) 좋은 상품이 2) 정확하게 타겟팅 되면 귀찮은 홍보가 아니라 소중한 정보가 된다 생각합니다. 내게 대출이 필요 없는데 이자도 비싼 대출 광고가 자꾸 날아드니 짜증이 나는 거겠죠. -

## 2-4) 안 맞는 사람이 있듯 안 맞는 책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말아요.’라는 말이 있지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서로 상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니까요. 씩씩하고 크게 밝게 인사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자라온 환경이나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겪어서 그런 행동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책도 나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 책은 결국 사람. 한 저자의 생각을 글로 정리한 것인데요. 그 저자의 생각이 나의 상황이나 나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교만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2-2)에서 설명했듯 ‘자신의 방법’만을 정리한 책을 접할 때 이런 오류가 많이 생기지요. 사람 관계에서 곤란에 처했을 때마다 술을 거하게 마시며 ‘미안해!! 이거 마시고 기분 풀어!!’ 식으로 해서 효과를 본 저자가 ‘인간관계는 술로 풀면 된다’는 책을 썼다고 쳐요. 이런 경우에 오류가 생기는 거죠. 누군가는 술을 못 마시거나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요. 내용 그대로 받아 들이기보단, ‘뭔가 관계를 부드럽게 해줄 노력이 필요하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죠.

저도 세상에 다시 나와 열심히 꿈을 이루려 노력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는데요. 개중에는 서로 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부딪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해서 하는 행동 말인데, 그 하나 하나가 내게 정말 맞지 않는, 그리고 내가 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될 때가 있었어요. 이럴 땐 서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니 그냥 만나지 않는 게 낫더군요. 그 책의 생각들이 나와 맞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받아들이기에 불편한 것인지는 각자 지혜로이 판단해야 할 문제일 것이고요. 주식투자로 돈을 번 저자의 ‘빛을 내서라도 주식투자는 해라’라는 말과, 너무도 자주 듣는 말이겠지만 ‘부모님께 효도해라’라는 말, 둘 다 행하기엔, 배우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나랑 정말 안 맞는 것인지, 내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는 각자가 판단해야 할 것이니까요. ‘주식은 나랑 안 맞는거 같아’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내 스타일이랑 안 맞아’. 차이점이 있겠죠? 책 한 두권을 접하고 안 맞다고 해서 ‘책은 현실과 달라’ 해 버리고 책을 접하지 않으면, 갇히기 쉽다고 했습니다.

나랑 비슷한 무리하고만 어울리면서 비슷한 생각에 갇히게 되니까요.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좋은 생각’들이 있어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해주지 않을 그런 생각들이요. ‘꿈을 가지고 사는 건 어렵다? 꿈 없이 사는 건 쉬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느니 죽음을 택하곤 한다’ 이런 말들은 내 주위에 평범한 사람들이 해 줄 말이 아니죠. 그러기에 책을 접하지 않으면 접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저런 생각들이 단순히 ‘나랑 맞지 않는 것’ 인지, ‘아직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인지는 독자분이 충분히 생각해보면 아실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연인이나 멘토를 찾을 때도 한 두 명의 사람을 만나보고 ‘나랑 안 맞네,’ ‘찾기 힘들겠네’ 하고 포기해 버리면 삶에서 긍정적 변화가 생기긴 어렵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지요. 쉽지 않지만 재미있고 보람 있는 작업입니다. 소설 ‘어린왕자’ 에도, 장미가 말하길 ‘내가 소중한 이유는 당신이 나를 위해 신경 써온 그 시간들 때문이에요’라는 문구가 나오죠. 맞는 책을 찾을 때까지 포기 마시고 열심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자의 글투, 저자의 생각, 책 디자인, 저자 A, 저자 B 등.. 요소는 무척 다양합니다.) 할 수 있다면 내 생각과 차이가 많지만, 지혜롭다 생각되는 책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크게 성장합니다.

## 2-5) 책과 현실은 다르다?

적잖은 분들이 '책(이론)과 실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말하자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책이 틀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을 멀리하게 되면 자신만의 방법에 갇히게 되어 더 고만고만한 방법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진단 거죠. 비슷한 방법으로 하니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서 삶이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거죠. (아인슈타인씨의 명언이 있지요.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미친짓이다.)

1-1)에서 배우는 방법에 크게 3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1 사람 2 강의 3 책. 이렇게 였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1, 2는 대부분의 경우 잘 이루어지지 않지요.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그것만으로도 피곤하거나,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일부러 전문가를 만나러 다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만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들(전문가)가 남긴 편지(=책)를 접해야 한다 했습니다. 경험자에게 많이 묻고, 배워야 하는데, 직접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 그들이 남긴 책을 접하자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책, 다시 말해 경험자의 조언중에 독자(나)에게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단 겁니다. 그 예시나 원인들은 2-2), 2-3), 2-4)에서 설명을 했지요. 다시 말해, 저자는 맞다 생각하고 쓴 내용이지만 조사나 생각이 부족했거나, 저자가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독자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책을 썼거나, 혹은 정말 나랑 안 맞는 책이어서 정도의 이유로 인해 현실에 안 맞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책과 실재는 다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좋고, 내게 맞는 책을 찾아서 읽고, 나에게 맞게 적용하면 그건 '책은 현실과 달라' 가 아닌, 내 인생을 바꾼, 책(조언)이 되는 거지요. 얼추 나에게 맞는 책을 찾았어도 그 내용들이 다 내게 맞는 것은 아니니 적절히 변형해서 적용하고, 했는데 뭔가 아쉬운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다시 하고. 그러면 분명히 됩니다. 위 문장은 책을 '조언자'로 바꾸어도 되지요. 나에게 맞는 조언자를 찾고, 그 조언도 내게 다 맞는 것은 아니니 적절히 변형해서 적용하고, 했는데 뭔가 아쉬운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다시 해보고, 그러면 분명히 되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울 것이 무척이나 많지요. 꿈을 찾는 법, 꿈을 이루는 법, 돈 벌고 모으고 불리는 법, 인간관계, 건강관리, 음식, 여행, 패션 등등.. 이 모든 것을 스스로의 경험으로 배우기엔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제발 혼자 일일이 다 시행착오 겪지 말잔 거지요. 왜냐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해보고 고민도 많이 해왔으니까요. 상당수 문제들은 몇 천년 이상 노하우가 누적된 것들도 있지요. 그 노하우들을 놔두고 혼자 하는 것은 한 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거나 배우려면 신경 써야(머리쓰기)하니 귀찮아서 피하는 것 아닐까요? 점프력이 부족해서 포도를 못 따먹게 되니 괜히 싹포도를 누가 먹어? 하고 툴툴거리는 이솝우화의 여우처럼요.

(이 역시도 이솝 선생님이 약 2000년 전에 세상을 살다가 사람들을 관찰하고 깨달은 것이었겠죠. )

## 2-6) 문행결 : 생각과 행동과의 간격이 성장속도를 결정한다.



앞 부분까지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아셔야 하고요!) 책을 읽고도 바뀌지 않은 이유는 좋은 책을 만나지 못 했거나(한 두 번 해보고 말아서), 책을 읽기만 했거나, 읽고 평만 했기 때문이지요.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보고 단장을 하면 내 상태가 좋아질 수 밖에 없는데, 엉뚱하게 거울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평하거나 거울 자체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과 같아요. 당연히 바뀔 수가 없지요. 독서 토론이니 하는 것들도 사람들이 모여서 거울 평가 하는 것과 같아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전작 '독서천재가 된 홍대리'와 '읽어야 산다'에서 이런 '실천을 강조하는 독서법'에 대해 언급한 뒤로 다행히 잘 이해해서 평을 그만두고 실천해서 삶이 바뀌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 한국엔 이런 개념을 못 접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성인이라면 적어도 10년 이상을 평하는 독서나 읽기만 하는 독서에 익숙해 있을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거울에 비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거울 자체 유리면만 보거나 혹독하게 거울 디자인에 대해 평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마세요' 이걸 훈련해야 하는 것과 비슷할거예요. 오랜 습관이 되어 있어 그렇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책을 읽다가 좋은 문구, 내용을 만나서 마음이 동하면 행동으로 해보면 됩니다. 실제로 행동하면, 실제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 망설일 수도 있을건데요. 작은 것부터 연습해 보시면 되요. 제가 행동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문구 하나 알려드릴게요.

### **'생각과 행동과의 간격이 성장속도를 결정한다.'**

위 문장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현재까지의 독서 습관에 따라 반응이 나올텐데요.

**1) 평하는 독서 :** '누가 그걸 몰라? 실천이 어렵지. 이 저자는 남들 다 아는 소리를 책에 적고 있어.', '성장? 꼭 성장해야 하나? 난 이대로가 좋은데?' 등등.

**2) 보는 독서 :** '아..그래 행동하면 좋겠다. 끝.'

**3) 아는 독서 :** '이 문장 멋있는데? 외워두고 자랑해야지' 하며 외우거나 암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적할 때 사용함. 본인은 실천하지 않음. (계속하면 주위에서 싫어하겠죠. 본인만 만족)

----- 위 반응까지는 본인 삶에 변화가 생기질 않습니다 -----

**4) 실천 독서 :** '이 문장이 도움이 되겠어. 적어두고 암기해야지, 폰에도 적어두고 방에도 붙여둬야겠다!' 해둔 뒤, 행동하기 두렵거나 할 때 저 문장을 보고 실천에 바로 옮김! -> 결과로 나타남.

**5) 창조 독서 :** 실행해서 깨달은 것을 주위에 나눔. 더 개선 시킴 -> 여러분 몫이네요.

예시를 상세히 보여드렸습니다. 위 문장이 와 닿았다면 (혹은 되게 와닿진 않더라도 엄청나게 거부감이 들거나 하지 않는다면, '실천하는 독서법'에 대해선 많이 고민하고 경험한 저자가 추천한 문장이니) 메모하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책을 읽고 좋은 문장이 나와도 '메모'라는 행동으로 옮기질 않지요. 독자님 중에 메모만 하시더라도 실천 하신거예요. 뭔가 더 실천하고 싶으시면, 앞까지 나온 내용들 중에 와 닿은 것 한 두가지를 실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감사 메일을

보내보셔도 좋겠지요. 앞서 두 권의 '실천 독서법' 책을 내고 정말 많은 메일을 받았는데요. 상당수는 '책이 정말 좋았어요.' 류의 내용입니다. 그런 메일 보다는 '책대로 해서 제 삶이 바뀌어서 이런 감사를 표합니다. (하고 선물 동봉하는 :) ' 이런 메일이 서로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독서 토론이 별로 의미 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읽고 실천할 점'을 나누는 모임이 조금 있습니다. 책 읽고 평하는 모임보단 훨씬 발전된 모임이지요. 제가 권하는 모임은 더 나아가 '읽고 실천한 점'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실천'할' 점과 실천'한' 점**은 받침 하나 차이지만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혼자서 계속 동기부여 받기는 쉽지 않으니 '실천 독서 모임'을 만드셔서 정기적으로 서로 '실천한 점'을 나누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실천거리네요! 이런 문장을 볼 때 또 평하거나 가만히 보지만 말란 거예요.) 해서, 익히기에 도움 되도록 '문행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 **문구** : 독서하다 와 닿은 문구는 꼭 메모하고 암기한다.
- **행동** : 실천해야지! 생각난 것이 있으면 24시간 내에 행동한다.
- **결과** : 결과를 나눈다.

#### ※미션※

- 1) 앞으로 독서하다 좋은 문장이 있으면 반드시 메모합니다. 암기하면 더 좋습니다.
- 2) '문행결'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행동할 수 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미션이 버거우면 작게 나누면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꿈행부기' 커뮤니티를 가입하셔서 기존 실천기들을 읽어 보시는 것도 실천이지요.

1-1 '좋은 책'을 1-2 '찾아서' 1-3 '문행결' 하면 삶이 나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2-1 좋은 책을 찾으려 하지 않고, 2-2 상업성 짙은 책들의 마케팅에 넘어가 몇 권 접하고, 2-3 평가거나 보고 끝내면 삶이 그대로 일 수밖에 없지요!

'실천이 어려워서..'하시는 분들은 목표를 잘게 나누지 않아서 그래요. 책 읽고(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배우질 않으니 삶의 노하우가 적고 성과가 나질 않지요. 배우고 실천하는 삶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보람을 느끼고 성장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삶에서 어려운 점이 어차피 없을 수는 없단 것을 생각하면, 배우는 삶과 배우지 않는 삶 어떤 것이 나을까요?

## 3 왜 안 읽어나? (습관 잡기)

### 1) 약속을 정해야 사람을 만나지

심지어 취미를 '독서'라고 말하는 분들도 독서량이 월 4권(주1권) 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친구는 주 1회 이상 만나면서요. 1-2)에서 말씀드렸죠? 책은 누가 쓴다고요? 사람이 씁니다. '언제 한 번 만나자~'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볼 마음이 크진 않지만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지요. 책도 '언제 시간 나면 봐야지' 하니까 못 읽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려면 약속을 잡아야 하듯, 책을 만나려면 약속 시간을 정해야죠. 독서는 저자를 만나는 것과 비슷하다 했습니다. 친구를 주 3회씩 만나 얘기 나누는 것과, 저자를 주 3회씩 만나는 것과 소요 시간은 같습니다. 책도 마찬가지로요. 시간을 정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책은 사물이어서 갑자기 약속을 잡거나 갑자기 취소해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장점이자 단점이지요.)

아침에 10분이건, 출퇴근 시간에 20분이건, 취침전 30분이건, 매주 목요일 7시에 1시간, 언제가 됐건, 일정한 약속 시간을 정해둬야 저자(=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자와의 약속이라 생각해도 좋고 본인과의 약속이라 생각해도 좋습니다. (사실 자신과의 약속도 우리는 여기는 경우가 많지요. 그게 반복이 되면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니 '자신을 믿는 마음', 곧 자신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책은 사물이라는 장점을 활용하고, '목표는 항상 잘게 나누기'를 명심하셔서 적용하면 '아침 식사 전에 1페이지 읽기.' 이런 것도 좋은 약속이 되지요. 안 해도 아무일이 생기지 않으면 안 하게 되니 배수진 작전을 활용해서 '아침 독서 하지 않고선 식사하지 않기' 식으로 약속 시스템을 정하셔도 좋습니다. 연 독서 목표량을 정해둬야 하고, 그에 따라 월, 주 독서량을 정해둬야 합니다. 월 2권 읽어서 1년에 24권인데, 10년 읽어야 240권입니다.

500권 정도 읽으면 대학 한 번 졸업한 양의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 접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 1천권에서 2천권을 읽으면 사람이 확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월 2권 정도로는 너무 늦어요. 친구 만나는 정도랑 비례해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주 2~3권을 목표로 약속 시간을 정해보면 어떨까요? 배우기가 많이 간절하신 분은 양을 더 늘리셔도 좋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 천천히 하고 싶으신 분은 양을 줄여서 하시면 되고요. 한국인의 평균 독서량은 월 0.8권이고 일본인의 평균 독서량은 월 5권입니다. 우리 '책과의 약속시간'을 잡아요.

### 3-2) 저자가 직접 읽어준다 생각 해보세요.

'책이 사람이다'라고 설명은 했지만, 어쨌거나 실제로 책은 사물이잖아요. 편하게 약속을 잡아 아무때나 만나고 보낼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진짜 사람이 아니니만큼 집중을 못하게 되는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중하게 만드는 팁 중에 하나인데요. 저자가 직접 날 위해 이 책을 써주고, 날 위해 지금 내 앞에서 이 책을 읽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접하는 겁니다. 강의를 찾아볼 수 있다면 찾아본 뒤 읽으면 저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책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소리를 내어 읽는 것(내가 소리내어 읽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저자가 소리 내어 읽어준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이 방법으로 독서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지만, 일단 독서 습관을 잡기 위한 팁으로 시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자의 사진을 구해서 옆에 두고 읽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책은 편지라고 설명드렸죠? 앞 시대에 살다간 저자의 편지를 통해 그 저자와 대화를 나눈다고 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독서는 과거의 가장 현명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 데카르트**

### 3-3) 단번에 월 20권 독서가가 되는 방법

정말입니다. 책을 전혀 읽지 않던 분도 월 20권 독서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책은 사람이 쓴 것이라 했고 결국 '책은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친한 친구를 주 1~2회 만나서 3시간 정도 대화 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죠? 더 자주 만나시는 분도 있을거고요. 친구는 만날 수 있지만 저자는 그렇게 만나면 안 되는 걸까요? 친구를 만나 대화하는 것과 저자를 만나 대화하는 것에 소요되는 시간은 같습니다. 시간 문제는 전혀 아니란 거죠. 만약 여러분이 출판사 사장님이라면 매일 저자들의 원고를 보거나 저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매일 한 명씩 만난다 치면 1주일에 7권의 책(저자)을 만나는 거죠. 매일 친구, 혹은 애인 만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 만나듯이 그냥 책을 만나시면 됩니다.

분명 주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를 깊게 나누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로요. 쉬운 책도 있고, 어려운 책도 있습니다. 권수만 일단 늘리자 치면 쉽고 얇은 책을 만나면 되지요. (가벼운 이야기를 길지 않게 하는 친구가 있듯) 어려운 책이 문제일 텐데, 학교 수업 때 수업 들으면 내용들 다 기억하셨나요? 한 시간 앉아 있었으면 일단 수업을 들은 거로 치잖아요. (혹시 100프로 이해 못 했다고 수업을 안 들은 것으로 치는 분도 계실는지?) 그런식으로 어려운 책을 만나더라도 일단 페이지가 넘어가면 읽은 거로 치면 됩니다. (이해하고 자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합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안 남은거 같아도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되는 놀라운 뇌의 비밀이 있거든요. 사실, 친구가 어제 있었던 소개팅 얘기를 해주더라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그 내용을 일일이 기억하진 않지요.

그냥 흐름만 파악하는 거죠.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책은 어렵다는 괜한 고정관념이 있거나, 생각력이 부족하거나 본인이 아직 무지의 지를 덜 깨달아서 잘 배우질 못하거나 듣기 싫어하니 많이 안 접하게 되는 거죠. 계속 연습하면서 이해력, 생각력을 훈련해 나가면 대화를 따라가기 힘들었던 지혜로운 친구의 이야기도(어렵거나,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운 책) 점점 잘 따라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만날 때마다 너무 가볍고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피하게 되실 거예요. 자기 수준에 적당하고, 정보가 되거나, 듣기 좋은 소리를 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마찬가지로 일단 독서량을 늘리자 하면 (습관을 잡기 위해서, 어떤 책이나, 어떻게 읽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책을 낸 내 친구를 만나는 거다.' 개념으로 책을 접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3-4) 당신의 생각력은 충분한가요?

사람이라면 체력, 정력만 따질 것이 아니라 생각력도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전 생각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을 시작한 지 11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11살이라고 생각해요. 육체 나이가 저절로 누구나 먹는 것이고, 생각 나이가 중요하겠죠. 생각력이 충분한가, 생각량은 충분한가 체크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삶에서 제일 중요한 이 두 질문에 답을 못 하거나, '갑자기라 당황된다...', '어렵다.. '라고 답한다면 생각량과 생각력이 부족한 겁니다. 성인 남자라면 10kg 아령 정도는 들고 몇 걸음 걸을 수 있겠죠. 이게 어렵다면 기본 체력이 부족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성인이 되었는데 저 두 질문에 답을 못한다면 '생각력,량'이 부족한 거지요. 평소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당황한 것이고, 기본적 답을 찾고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어야 하는데 기본 답도 찾질 않고 있으니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저 질문을 처음 접했다면 괜찮지만, 이 글을 보시고도 반 년 뒤에 답의 진전이 없으면 시간을 조금 잘못 쓰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덧셈을 모르는데, 7곱하기 8을 시키면 어려운 것이라 마찬가지예요. 다만 아직 한국에서는, 또 대다수 공교육에서는 충분히 생각을 하는 교육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단순 암기를 시키죠) 생각력이 부족한 겁니다. 저도 11년전, 제가 생각 없이 살아왔던 것을 처음 '깨달았'을때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곤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선 자꾸 이상한 짓 하지 말라며 핀잔을 주더군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시간들이 가장 중요했고 인생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그때 제게 뭐라하던 분들은 지금 아무말도 하지 않지요. 도움이나 배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요.

체력, 정력이 부족할 수 있지요. 하지만 평생 부끄러워하거나 피하고 숨겨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운동하고 잘 먹으며 키우면 되니까요. 생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수준에 맞는 생각거리를 붙들고 연습하면 돼요. 특히나 아직 이런 부분을 훈련 받아 본 경험이 적어서 익숙하지 않은 것이예요. 어떻게 하면 생각할 수 있는지, 생각력을 키울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궁금하셔야죠!! 행하셔야 하고!) 꿈행부기 카페에 오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독자님의 생각 트레이닝을 응원합니다!. 모르면 질문!! 명심, 행동하시고요.

### 3-5) 문자와 익숙해지기

책을 더 잘 접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문자'입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인류 역사가 대략 1만년 전부터 시작됐다 합니다. 처음엔 언어를 쓰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러다 조금씩 소리 신호가 발전되고 언어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덕분에 소통이 빨라지고 서로의 경험, 노하우가 잘 전달됐겠죠. 하지만 글자(문자)가 없었기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의 지혜 전달은 오로지 같이 어울려 사는 분들의 말로써만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다 기원전 3천 년 전쯤에 상형문자를 생각해 낸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발전되면서 문자가 만들어졌어요. 기록이 가능하니 인류의 지혜가 좀 더 빠르게 소통되고 발전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일일이 손으로 적어야 했기에 느렸던 것이 1200년 경 (이 역시 연구자들이 연구 중입니다)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지식이 폭발적으로 쌓이고 전달되었죠. 그리고 2000년 전후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또 한번 폭발적 성장을 한 것이고요. (위의 내용은 제가 많은 책을 읽으면서 배운 것들인데, 이런 내용만 적어서 정리한 책들이 주로 지식을 다루는 책이 됩니다. 전 지식에만 치우치지 않는 방향이고요. )

문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잠시 배경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처럼 문자는, 아직까지 사람만이 쓸 수

있고, 인류의 엄청난 발명이지요. 문자언어가 소리 언어보다 특별히 더 이해하기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누구는 소리에 민감하고 누구는 향에 민감하듯) 문자를 익히기가 절대 불가능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자주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은 맞을 거예요. 그렇다면, 책의 정보를 더 잘 처리하기 위해선 앞서 말한 1) '생각력'을 꾸준히 연습하고, 2) 문자를 잘 처리하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훈련이라 하면 괜히 거창하니, 그냥 수준에 맞는 내용을 계속 접하자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책을, 문자를 처리하는 신체 기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많은 경우(저도 그랬고) 눈이라고 생각하지만 눈은 단지 카메라 역할이고 실제 그 정보를 처리하는 곳은? '두뇌'죠. 결국 생각력입니다. 문자를 접하기에 상황이 안 맞으신 분이 있으면 '오디오북'도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선 모르는 분이 많던데(2016년 기준) 목소리로 녹음한 책입니다. 운전, 집안일 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굳이 소리와 문자 정보를 입력받는데 있어 차이라면, 소리는 그냥 들리는데 비해 문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써야하는 행위 같네요. 물론 한국어에 익숙하다면 글자도 그냥 읽히긴 하겠지만 소리가 조금 더 수동, 자동적이지 싶습니다. 누가 뭐라 말하면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글자는 보다가 딴 생각을 한다던지 하면 분명 내용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소리도 하기야 그런가요... '문자와 익숙해지기'는 제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챕터는 그냥 문자에 대한 배경지식을 정도를 접하는 장으로 읽어주세요.

### 3-6) 집중력 키우기

정말 오랫동안, 많이 고민해온 부분입니다. 생각력과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집중력은 거의 10년간 생각해 왔네요. 왜 그랬냐면 처음에 독서 습관을 잡으려고 하는데(2006년 경) 집중이 안 되는거예요. 내가 생각 없이 살아왔다는 것은 깨닫기 시작했고, 해놓은 것은 없고, 뭔가 해야겠다고 해서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앉기만 하면 다른 생각이 나고, 강아지와 놀고 싶고, 갑자기 배고파지고 어느 순간 엎드려 자고 있는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키울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해서 효과를 봤던 것을 정리해 볼게요.

#### - 큰 목표를 설정하고 나눈다.

: '독서를 열심히 한다.' 식의 목표로는 체크가 안 됩니다. 연 100권, 200권등의 목표를 잡고 그러기 위해 월 몇 권을 읽어야 하는지, 하루 몇 페이지를 읽어야 하는 지 등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 - 타이머를 사용한다.

: 하루 몇 페이지를 읽으려면 한 시간에 몇 페이지를 읽어야 하나 알아야겠죠. 대개의 독서 초보분들은 분당 1페이지 정도를 읽습니다. 계산상으론 60분이면 60페이지를 읽죠. (실제론 하다가 다른 생각을 하지만) 그럼 60분에 70페이지를 읽어야지! 이런식으로 목표를 잡고 게임하듯 하는 거예요. 반복하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 - 15~20분 마다 책을 바꾼다.

: 많은 연구에서 대개 사람의 집중력은 15분이라 합니다. 한 책을 15분 보게 되면 뇌가 지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주제의 책으로 바뀌가며 읽었습니다. 처음엔 정신 없는데, 하다보면 익숙해 집니다.

**- 집중하기 좋은 환경을 찾는다.**

: 독서 특강을 가면 많은 분들이 '작가님! 제가 잘 못하는 거 같은데, 침대에서 책을 읽거든요. 그럼 항상 잠이 와요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합니다. 질문에 답이 있죠. 그런 분은 침대에 가면 안 되죠. 잠이 안 오고 집중할 환경을 찾으셔야 되요. 어디인지는 각자가 다르니 스스로의 과제입니다.

**- 집중에 도움 될 문구를 붙이고 외운다.**

: 어제 보다 나은 나 자신이 된다.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이가 그토록 바라던 오늘이다. 내가 우리 부모님 최고의 투자다. 등등등... 저를 동기부여 시킬 많은 문구들로 제 방, 책상을 도배 했습니다. (역시 집중 환경 만들기입니다.)

**- 내 생각력에 맞게 독서의 수준을 점차 높인다.**

: 스스로는 잘 못 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객관화가 쉽지 않으므로) 독서력이 늘수록 그에 맞게 책 수준도 높여야지 그러지 않으면 책이 쉬어서 집중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능력보다 너무 어려운 책을 골라도 마찬가지겠죠.

운동과 비슷합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살짝 높은 수준을 고르시면 무난합니다.

**- 수진이(배수진)을 활용한다.**

: 한국인을 위한 영어훈련법인 전작 '영어피트니스'에 상세히 수록한 내용인데요. 수진이(그냥 기억하기 쉽게 제가 조금 이름을 바꾼 것)를 활용하는 겁니다. 배수진. 물을 뒤에 두고 진을 쳐서 싸울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지요. 책을 잘 안 읽게 되는 이유는 안 읽어도 아무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반드시 읽을 수밖에 없도록 해야죠. 주위에 내 목표량을 선언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벌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싫다고 자기와 안 맞다고 하는 것은 배수진을 치지 않는 겁니다. 대개는 그럼 적당히 하게 됩니다.

**- 내가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확인해두고, 독서 시의 집중력을 그에 맞게 끌어 올린다.**

: '왜 책을 보면 집중을 못 할까?' 몇 달간 고민하던 날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잠시 게임을 하고 있다가 순간 '내가 이렇게 게임에 집중하고 있으면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가도 모르겠구나. 진짜 엄청난 집중력이구나. 이것 좀 더 좋은 쪽에 쓸 수 없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게임할때의 그 무서운!! 집중력을 독서에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한참을 하다보니 지하철에서의 그 놀라운!! 집중력을 끌어 낼 수 있었고, 점차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만화 드래곤볼에서 주인공인 손오공이 분노상태에 들어가면 더 높은 전투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 상태를 일상에서 유지할 수 있게 수련이 되면 더 높은 단계의 분노(전투력 상태)로 갈 수 있게 되거든요. 비슷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자꾸 집중력을 연습하니 항상 집중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5년쯤 연습하면서 한 4~5단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너무 집중을 항상 하고 있어서 일부러 머리를 꺼야 하는 지경에 이르더라고요. 머리를 고고 살았던 것을 깨닫고 훈련한 지 10년 만에 그렇게 되었네요. 하나 더 도움 거리로 논어에 보면

공자님이 '미인을 좋아하듯 덕을 좋아해라' 말하세요.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만큼 자기 수양을 하느냐? 비교해 보면 얼마나 부족한지 느낌이 오지요. (여성분들은 외모를 가꾸는 노력에 비해 얼마나 배우기를 좋아하나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위 문구로 비교해도 집중력을 체크해 보고 노력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빠르게 읽으면서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굳이 속독, 정독을 나눌 필요도 없고 본인 필요,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속독법을 안구 운동이니 등으로 기술적으로 배우는 것은 기본 발성도 안 익힌 사람이 바이브레이션 흉내내는 것과 비슷한 거 같아요.

잘 배워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쌓고, 또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타인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다른 마음으로 배움을 접하게 될 것이고 그 마음에 집중해서 책(배움)을 접하니 자연스럽게 속독, 정독이 되는 것이 맞는 길 아닐까요? 그 결과로 카메라 역할을 하는 눈이 빠르게 움직여지는 것인데 그것만 흉내 낸다고 될 일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눈을 빠르게 운동시켜도思考力이 부족하면 이해가 덜 될 것이고 思考力이 충분해서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한다 하더라도 독자가 될 위해 배우는지에 따라 쓰임이 달라지겠죠. 장미가 물을 먹으면 향기를 뿜고,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을 뿜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배워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열심히 배우면 주로 자신을 위해 그 배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계속 노력해도 부족하고 실수를 하겠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이들을 계속 찾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닮아가는 듯 합니다. '큰바위 얼굴'을 쓴 나다니엘 호손 작가분도, 본인은 큰바위 얼굴 같은 인물이 되지는 못 했지만 적어도 그런 마음을 작품에 담아 쓴 것 아닐까요?

## 4. 어떻게 읽을까?

앞의 장들을 통해 1 책의 개념 재정리(배움의 방법) 2 왜 읽어도 그때 뿐이였는지 3 왜 잘 안 읽었는지에 대해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죠? 내용들을 비평하지 않고, 잘 읽으셨다면 독서(배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셨을거예요. 그럼 이제 잘 읽는 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 4-1) 독서 습관

앞의 내용들에 기대어 정리를 하자면 '삶이 유한한데 직접 경험으로 다 배우기엔 시간, 노력이 많이 들고 반복된 실수의 확률이 높다. 그러니 먼저 경험한 이들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직접 만나 배울 수 있으면 좋지만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그들이 적은 편지(책)을 활용해야 한다. 이 책과의 만남을 사람을 만나듯 매일 일상 중에 놓자.' 이것이 '독서 습관을 잡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상 중에 매일 배움의 시간을 추가하죠. 아마 위 내용, 개념을 많은 분들이 못 가지고 있음으로, 적잖은 분들이 '책 읽을 시간 없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직장인이 출근해서 책을 읽고 있으면, '책 읽을 시간 있으면 나가서 고객이나 한 분 더 만나고 와!!'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차를 사게 되면, 걸던 시간이 운전하는 시간으로 대체되겠죠. 마찬가지로 아직 책을 덜 읽던 분은 안 읽던 시간에 하던 일을



독서로 대체하는 겁니다.

**‘독서 습관 잡기 - 독서량 늘리기 - 집중력 높이기’** 순서가 되겠고, 그렇게 해서 많은 독서를 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으면 독서법 문제이므로 독서법을 체크 해야겠고요. 집중력에 대해선 3장에서 설명했으니 이 장에선 독서 습관에 대해 나눠볼 것인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책을 접할 환경을 늘리면 되거든요. 도움 될 요소를 정리해 볼게요.

- **독서대** : 꼭 몇 개 마련하시길 권해요. 두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메모도 할 수 있고 자세도 좋아집니다. 오래 있는 공간에선, 가능하면 동선에 맞게 여러 군데 독서대를 두시는 것도 좋아요.

- **책장** : 책장이 있으면 책도 정리해 놓고, 책이 자꾸 보이면 읽게 되죠!

- **도서관 /서점** : 정부에서도 계속 도서관을 늘리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구석 구석 은근히 숨겨진? 내가 모르던 도서관도 많아요. 다른 도서관에서 택배로 책을 보내주기도 하고, 나라에서도 독서 습관을 도와줍니다. 세금 냈으니 열심히 읽어야죠.

- **독서 모임** : 같이 책 읽는 동기들이 있으면 도움 되겠죠?! 개인적으로, 전 독서 습관 잡을 때 독서 모임에 나가니 너무 ‘책만 읽게 생긴 분들’이 있어서 재미 없어서 안 나갔는데요. 각자에 맞추시면 되겠어요. 다만 설명해왔듯 아직까지(2016년) 한국의 대다수 독서 모임은 취미 위주나 토론식이라 여기서 말하는 독서법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독자님이 직접 만드는 것도 좋겠고 제가 운영하는 ‘꿈행부기’ 카페에 오셔서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 **독서 환경 (음악, 조명, 장소)** : 제 경우엔 처음에 집중을 돕기 위해 탕고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독서를 했었습니다. 뭔가 두근 두근대게 하면서 ‘꼭 책을 읽어서 성장하겠어!!’ 느낌을 받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자연의 소리로 바꾸었었고 (바다 소리, 새소리), 나중엔 그냥 화이트 노이즈 (백색소음으로 검색해보세요.)를 사용했습니다. 더 나아선 그냥 이어폰만 꼽고 있었고 지금은 그냥 집중합니다. 책이란 게 문자다 보니(오디오북도 있지만) 아무래도 처음 습관 잡을 땐 소리 환경을 조절해야지 싶습니다. 조명이나 장소 등도 적절하게 본인이 적절히 긴장되고 적절히 편하도록 맞춰보세요. 집중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보시고요. 저는 집에서 책 보면 자꾸 딴짓해서 처음에 지하철을 제 도서관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책 읽기 전엔 1시간 거리 지하철 타는 게 그렇게 지루했는데 독서 시간으로 잡으니 딱 좋더라고요.

- **시간대** : 기상 후, 취침 전, 점심시간 전후, 출퇴근 시간. 적잖은 분들이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는 시간이지요?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독서로 바꿔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연구해본 결과 대다수의 성인들이 하루 8시간 이상의 시간을 ‘별 일 없이’ 보내더라고요. 계획되지 않고, 집중하지 않은 시간으로 그냥 보낸단 얘기입니다. 오타가 아니고 저 숫자가 맞습니다. 독자님들 중에 앞으로 시간관리법을 많이 배우시고, 집중력을 높이시게 된 후에 다시 이 내용을 보면 이해하실거예요.

- **책 난이도, 내용** : 대개 자신의 능력보다 약간 높은 책을 고르는 것이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좀 쉬고플 때는 더 쉬운 책을, 도전하고 싶고 역량을 높이길 원하면 더 어려운 책을 접하면 되고요. 독서 습관과 약간 별개의 내용일 수도 있지만 난이도가 적절치 않아도 흥미를 잃게 되어 독서와 멀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번 강조하지만 독서는 단순히 종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 4-2) 메모! 어떻게 하지?

독서법 책들, 강의를 접하시면 아시겠지만 메모를 해라/ 말아라 의견이 다양합니다. 메모도 수첩에 하라는 사람이 있고 책에다 마구 적으라는 의견, 책은 소중히 여기고 수첩에 해라.. 다 다르죠. 이렇게 의견이 다른 것은 2-2)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신만의 방법을 권할 때 생기는 오류라 말씀드렸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가지를 참고해 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고, 자기화 하시면 됩니다. 각자 습관, 성향이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까요. 작년엔 책에 메모를 하는게 맞았는데 올 해엔 아닐 수도 있죠. 전 빌린 책에는 메모를 하지 않고, 산 책에는 메모를 합니다. 빌린 책에서 메모할 내용이 있으면 페이지수를 메모 해 뒀다가 나중에 따로 옮겨 적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이란 얘기지요. 저도 그때 마다 다릅니다. 또한 독서하다가 메모가 필요할 시에 바로 메모를 해야 하나(독서 흐름이 깨질 수 있음) 말아야 하나 의견이 다른데, 제 답은 아시겠죠? 알아서 독자분에 맞게 정하세요.

강의를 들으러 가도 메모하면 집중 안 한다고 싫어하는 강사가 있고 아무도 메모 안 하냐고 화를 내는 강사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다르니까요. 메모! 여러분이 알아서 많이 알아보시고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방법은 다양하나 메모를 해야하는 것은 대개의 분들에게 꼭 권합니다. (사실 권장이 아니라 필수죠. 적자생존! 적어야 산다!! (원래 뜻은 적응하는 자가 생존한다는 뜻이죠.) 독서법 서적들은 아주 많이 있는 아니고, 한 30여권 읽어봤는데 그 책들에선 (제가 경험한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다 메모를 권했습니다. 다만 지나가다 이런 문구를 본 적 있어요.

'정말 좋은 문장은 가슴에 새겨지니 적어둘 필요가 없다.', '진심에서 나온 것은 마음에 새겨진다.'

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응용하면 이성에게 고백할 때 눈을 바라보며 '널 내 마음에 영원히 새길거야.' 흐흐... 다 멋지고 좋은데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분 아니면 메모를 해야 돼요. 제가 알아서 판단하라 해서 '메모를 안 하는게 내 스타일이다(사실은 대게 귀찮아서 안 하는 것)' 하신다면 테스트를 시켜드릴게요. 여기까지 읽으셨는데 ' 왜 책을 읽어야 하나, 읽어도 왜 효과가 없었나?, 어떻게 읽어야 하나' 에 대해 30분 이상 말할 수 없는 분은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메모하시면 되세요~ 메모 10년째 해온 저도 메모하기 귀찮습니다. 그런데 메모가 귀찮다고 안 했다가 잊어버리는 그 소중한 정보와 지혜가 아까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법에 관한 책도 30여 권 읽고 (우리 배울 것이 정말 많아요!!) 나름의 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를 안 하는 것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성장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개인 취향이 아니라 '맨날 인생에서 같은 실수 반복하는 분들의 공통점' 이에요.

#### 4-3) 따르는 이가 없다면 일단 배우기! (비판은 그만!)

어떻게 작가가 되었냐는 질문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제 경우엔 작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배움을 시작하면서, 배운 것은 있는데 자꾸 잊고 실천안하고 있는 저를 위해 안 잊으려고 메모하고 책에서 배운 내용으로 제게 조언을 하는 것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다 보니 경험이 쌓이면서 책을 낸 것이거든요. 아직 잘 못 배우는 분들을 생각하며 글 쓸때도 있지만, 이전에 저를 생각하며 그때보다 경험이 쌓인 지금의 제가 해주고픈 말을 적다 보면 다른 분들이 보시고 ‘어!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며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조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오고 있지만, 비난하듯 다그쳐도 방어기제가 생기면서 잘 안 듣게 되지만, 좋게 말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거든요. 듣는 쪽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야는 것도 맞는 듯 합니다.

지금 이 장에서도, ‘회일아! 네가 정말 지혜로워지면, 네가 떠벌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주위에 몰리면서 배움을 요청하게 될거야. 달리 말하면, 지금 네게 누가 배움을 요청하진 않잖아? 너는 너가 잘났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들은 아직 널 인정하지 않는 단 거지. 그럴 땐 네가 자꾸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가르칠 게 아니라 겸손히 ‘배워야’ 한단다. 네가 잘 배우고 행해서 성과가 나면 사람들이 보고 배우러 올 거야. 그때가 되면 다른 이에게 조금 조언을 해도 될지 몰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다른 이를 가르치기 보단 배워야 할 때야. 책을 보고 자꾸 비판하려 하지 마. 비판만 하고 배울 점을 찾지 않으면 너의 성장이 가능할까?’ 라고 말해주고 싶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의 제가 배우기 전의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면 이 말을 알아들을 진 모르겠어요. 아마 웬 끝대가 와서 잔소리하고 가르치려 한다고 그러진 않을까요?

이전의 저나, 어린 친구들이 실제로 해본 적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다 생각하기엔, 사회 생활을 10년 이상해도 남의 조언에 귀를 못 기울이는 경우들도 많아서요. 뒤에서 생각하나를 더 풀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지혜로는 위의 조언하는 수준이 제가 낼 수 있는 최고의 답이네요. ‘성과가 나면 사람들이 배움을 요청할 것이니, 그 전까지는 가르치려 하지 말고 일단 배워라’논어에도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논해야 할 일들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지요. 쉬운 비유로 바꾸자면 직접 물에 빠진 사람을 여러 명 구한 경험을 갖기 전까진, 구출을 시도하는 이에게 물 밖에 서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죠. 구조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해내고 나면 그때 조언하란 겁니다. 책을 접할 때 이걸 적용하잔 거고요.

#### 4-4) 비판과 비난 그리고 조언을 받아 들이는 법

제가 처음에 비전공, 비연수로 영어를 가르치면서 참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버티고 계속 해 온 결과로 지금은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자리 잡아서 많은 왕초보분들의 영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지요.) 그 과정을 통해 비판과 비난, 그리고 조언에 대해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그걸 나눠 보려고요. 이 책에서 다루는 책중에 실용서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성장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 조언해 주는 책들도 있지요. 앞에서 설명 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이 책에 담겨 있어

도, 독자의 접근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서요. 비판, 비난, 조언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해 볼테니 읽어보시고 적용해 보세요.

-비난 : 무조건 상대를 깎아 내리는 것/ 예: '이 바보멍청아 너 말하는 거 진짜 짜증난다!!!'

-비판 : 근거와 함께 평가를 하는 것/ 예: '말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낮은 점수를 드립니다. 30점'

-조언 :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주는 것/ 예: '떨지 않고 잘 말하셨습니다! 주제를 조금 더 정리해 봐요~'

비난은 무시하면 됩니다. 말하는 이의 수준이 안 좋은거니까요. 혹 비난 하는 분이 주위에 많다면 그건 본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끼리끼리 어울리거든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비판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 상처는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어 생기는 문제입니다. 나는 나를 80점이라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30점이라 말하니까 그 격차에서 충격이 와서 상처가 되는거죠. 상대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조언은 대개 상대방을 배려해서 고칠 점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지요. 책에 조언이 담겨 있는 경우가 있지요. (비난 조가 담긴 책을 본 적은 없는 듯) 그런데 아직 배울 준비가 덜 된 분들은 조언도 듣기 싫어 하지요. 남이 내게 말하는 것 자체를 그냥 다 싫어합니다. 그런 경우엔 어떤 책을 봐도 배움이 없게 됩니다. 책을 보면서 계속 평을 하거든요.

자꾸 평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이들을 평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거울 비취 보기'로 다시 비유하면, 거울에 비취 보면 내 기대와는 다른 내 모습이 보이니 그게 싫어서 거울을 무시하고 다른 이들 외모를 평가하는 겁니다. 책 중에 '거울' 역할을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수 그런 역할을 하는 내용들을 쓰고 있고요. 엄청나게 잘 생기고 멋있지 않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운동 초보에게, '아직 근육량이 부족하니 1kg아령부터 시작합시다.' 말하는 것인데 1kg짜리로 찼찼메는 자기 자신이 보기 싫으니 5kg짜리를 버거워하는 다른 이들을 보며 놀려 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거죠. 5장에서 권할 책 리스트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부 있습니다. 이런 류의 책을 볼 때 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책에서 어떤 노력이 나오면 '에이 그런거 나도 하겠다.' 자꾸 비꼬는 거죠. 그러지 말고 배울 점을 찾아 배우는 것!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 용기를 배울 일이지, 물에 뛰어 들지도 않을 거면서 '나라면 머리를 써서 구하겠다' 식의 평을 하지 말잔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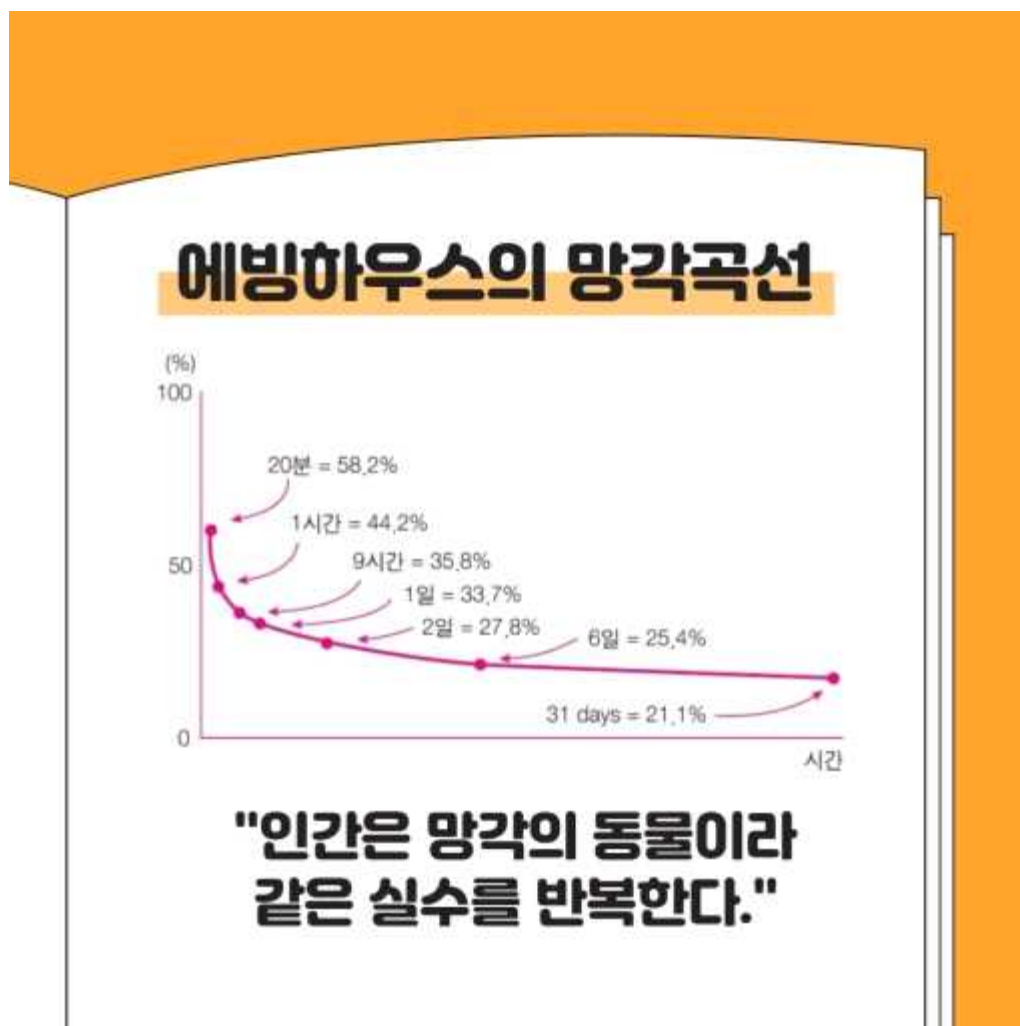
- 1)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본인이 행동해서 결과로 보여줄 것
- 2) 정말 그 사람을 위한 대안이 있다면 좋게 알려주기
- 3) 그냥 다른 이를 비판하는 맛에 하는 것이면 줄이거나 하지 말기.

이 책을 접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혼자 투덜대지 마시고, 개선점을 정리해서 출판사나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아니면 독자님이 더 좋은 아이디어로 책을 써 주세요. 서로 가진 재능과 쌓아

온 노하우가 다릅니다. 독자님께 배울점이 있다면 제가 배우면 되겠지요. 다만 독서법과 배움의 노하우에 대해선 제가 조금 배워둔 것이 있으니 이렇게 적어놓은 거니 참고해 보시란 겁니다.

## 5) 콩나물에 물 주듯! (읽어도 잊는대요?!)

‘책을 읽고 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하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친구랑 한 시간 대화하고 나면 그 대화의 모든 말들을 기억 할 수 있나요? 왜 책을 볼 땐 본인에게 그런 능력을 기대하나요? 너무 기대치를 잡아서 그렇거나, ‘역시 난 책이랑 안 맞는거 같아’ 하면서 여우와 신포도처럼 하려는 겁니다. 제가 도움이 될 놀라운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제가 독서법 서적은 약 30여 권, 공부법 서적을 100여권 참고 해봤고, 영어 학습법 서적도 ‘공부법’이기도 한 것을 감안하면 300여 권 추가 할 수 있는데요. 자랑이 아니라 독자님 대신 제 시간을 들여서 읽어왔고 그 노하우를 전하고 있단 얘기에요. 수 백권 읽을 노력을 1~2만원 책 값 내고 바꾼다면 여러분이 이익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접한 책 중에서도 저자가 많은 노력을 한 결과물이 있는데 그 노력을 제가 만원에 사는 것이 나은 거 같아요. 사고, 빌리며 많은 학습법 책을 보다 보니 ‘에빙 하우스의 망각곡선’ 이 종종 언급됐습니다.



보시는 대로, 우리의 뇌는 무엇인가 입력이 있고 10분이 지나면 바로 잊기 시작하고, 1시간이 지나면 50%, 1일이면 70%, 1주일이면 80%를 잊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무엇을 공부한 뒤에 1시간 지나서 복습하고, 1일 지나 다시 한 번 보고, 1주일 지나서 다시 보는 식으로 단기기억을 장기기억화 해서 잊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것 활용해서 단어등을 암기하는 학습법, 프로그램등도 있지요. (사실 이렇게 영어단어 암기해도 영어에 도움 되지 않습니다. 상술입니다. 다만 이 책은 영어학습법 책이 아니므로 여기까지만!)

그런데 제가 강조할 부분은 저런 내용이 아닙니다. 위의 내용도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1시간, 1일 뒤에 다시 보기를 하려면 번거롭죠. 사실상 그 타이밍을 어떻게 일일이 맞출것이며.. 저도 그렇게 저 에빙하우스 내용을 학습법 서적들 중에 접하면서 그냥 넘기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생각한 것은 아닌거 같고 유일하게 어떤 책에서 발견한 것 같아요. 뭐냐면!! 두둥!! (아 이런거 정말 저만 알고 싶어요 :) 한번 그래프를 보고 비밀을 찾아보시겠어요? 보통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1시간이면 50%를 잊는다고? 아이고.. 어차피 잊을거 공부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나대로 살자' 하지요. 긍정적 마인드로 한 번 찾아보세요. 아쉬운 점 말고 좋은 점, 잊는 것 말고 남는 것. (30초만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다음 문장을 읽어보세요!!)

...10 초..

20초... 30초..

네!! 잊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1시간 뒤에 50%나 까먹는 멍텅구리 뇌가 되지만, '남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한 번만 봐두면 한 달이 지나도 20%를 기억하는 놀라운 우리의 뇌!!!' 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뇌를!! 아이패드든 물론이고 슈퍼 컴퓨터보다 뛰어난 두뇌를 우리는 공짜로 선물 받았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 입니다. 뭘 보고 듣고 나면 바로 상당수 까먹는 우리를 보며 '에휴..내가 그렇지 뭐..' 할 것이 아니었던 거죠! 별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한 번 보고 들은 것은 한 달이 지나도 20프로 정도는 남는 단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에 물주기처럼'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콩나물 키우려고 물을 주면 물이 아래로 다 흘러 내리잖아요? 아니, 다 흘러 내리는 것 같지만 일부는 분명 흡수가 되지요. 그래서 얼추 보기엔 매번 물 줄 때 마다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새 콩나물을 성장시킵니다. 독서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읽고 나서 별로 내용이 기억나는 것 같지 않아도, 반복해서 읽다 보면

- 점점 내용이 기억되고 (2-1장에서 말한 '아는 독서')

- 이해도 됩니다. (3-4장에서 말한 생각력의 상승)

그래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재독이 정말 엄청난 효과를 불러옵니다. 재독을 막는 무서운 장애물인 우리의 '교만'을 해결해야 되지만요. 일단 '콩나물에 물 주듯, 잊는 것을 신경 쓰지 말고 독서 하다 보면 논다!' 는 것을 명심하시고 독서량을 늘려가 보세요.

## 5. 무엇을 읽을까

독서 초보이신 분이라면 서점에서 '책이 정말 많다...'막연히 느끼실거고, 앞서 말한 THX의 개념이 이해될 정도의 독서량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앞으로 배워야 할 목록'을 그릴수 있을거예요. 이 책은 독서를 안 해왔거나, 초보이거나, 수천권을 읽었어도 별로 삶에 변화가 없었거나, 꾸준히 해왔지만 체계를 잡고 좀 더 효율적으로 배우길 원하는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지도도 해보면서 배운 노하우를 나눠봅니다. 앞에서 '어떻게'에 대해 나눴는데, '무엇을'도 중요하지요. 아직 자기 인생 방향이 덜 잡혔고 자립하지 못 했는데, 이 분야 저 분야의 책들을 그냥 취미 삼아 읽는 것으로는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소설이나, 지식 위주의 책들로써는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내 삶을 돌아보고 적용할 수 있는 책들을 읽어야지요.

- 인생 기본 분야별 집중화 독서. 2달 20권의 기적!

앞서 말한 THX 독서를 응용한 것이예요. 단기간에 일정양의 정보를 접하게 되면 일종의 세뇌(?)효과가 나타납니다.

세뇌라고 하면 좀 부정적 어감이 있는데, 저는 역세뇌라고도 말해요. 왜냐면 대개 우리들은 어려서 잘 못 교육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평범한 것이 좋은거야', '책은 현실과 달라', '꿈 이루는 게 쉬우면 아무나 다 하게?' 이런 말들을 적지 않게 들어왔다면 '잘못된 세뇌'를 받아온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실패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책 많이 읽으면 바보된다'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커왔습니다.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떨쳐 버려서 성장이 가능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사고방식' 시스템을 장착하기 위한 독서법을 소개합니다.

시즌 1 미션 : 두 달간 분야별 20권 독서, 총 다섯 분야.

- 1) 성공자
- 2) 인생, 꿈, 죽음
- 3) 시간관리
- 4) 행복한 부자
- 5) 일 잘하는 법

살면서 기본적으로 꼭 익혀야 할 분야라 생각해서 잡은 리스트입니다. 이미 이 방법을 적용한 다른 분들의 성공 사례가 있으니 뒤에서 참고하시고요.

## 1) 성공자

성공의 의미에 대해 '많이 웃는 것', '자기 자신을 뛰어 넘는 것', '지인들에게 인정 받는 것' 등등 여러 의견, 명언들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자면 '바라던 것을 이루어 냄'이라 되어 있고요. 그런데 변질 된 의미로 많이 사용되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권력 갖는 것' 정도를 보통 성공으로 말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환경이나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일정한 성취를 해내는 것'을 말 합니다. 살면서 꼭 필요한 마인드 중의 하나가 '나는 할 수 있다' 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들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시도도 해보지 않은 채 다른 이들을 평하거나 부러워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공자님은 '15살에 배움에 뜻을 세웠다.' 하시고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님도 10대에 인생 큰 계획을 세웠죠. 이렇게 큰 인물들은, 인생의 방향을 정해두니 삶에서 오는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성취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중고교를 졸업하고 나면 인생의 방향에 대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바보들이 되어 버립니다. 생각력이 제로가 되는 거 같아요. 현재 학교에선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교육법을 쓰니 어찌겠습니까 우리들이 학교 밖 교육을 통해 스스로 배워야지요.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좋은 질문들과, 롤모델들을 통해 '나만의 내 삶의 방향'을 정해야지요. 한 사람의 인생 방향이 궁금하면 그 사람의 롤모델이 누구인지 봐도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롤모델이 없어요. 우물안에 갇혀 있다보니 롤모델을 만나본 적도 없고,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 그런 사람들 별 거 없는거 같다며 비판만 하고 있지요. '우물안에 갇혀 있어 무지가 깨지지 않아 교만한 상태' 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롤모델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공자 독서를 앞에 배치했고, 그로 인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익히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들이 고만고만 하다고 생각하시거나 '나는 이미 긍정 사고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래서 해낸 것이 무엇이 있나?' 묻고 싶네요. '성취만이 중요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표를 잡지 못하고 자립이 되지 않으면 주위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최소한 자기 밥벌이는 해야잖아요? 이왕이면 자기 가족 정도는 챙길수 있어야 겠고요. 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 접해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너무 대단한 사람들 이야기 말고, 좀 더 주위에서 쉽게 접할 만한 성공 스토리가 담긴 책들을 단기간에 여러권 접함으로써 '나도 할 수 있다!!' 사고방식을 갖추고 본인의 장애물을 이겨내고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경험을 하셨으면 합니다.

### \*Point\*

- 1) 성공자 독서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내어 내 삶에 적용해 볼 것.
- 2) 해보지 않고서 그 사람들을 평하지 말 것
- 3) 독서 후에도 뭔가 자신의 어려움에 도전해 보지 않았다면 '그냥 보는 독서'를 한 것. 꼭 실천!

## 2) 인생, 꿈, 죽음

사실 시즌1 미션에서, 다시 말해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죽음'이라 생각합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다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친구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스승님이 말하길 ‘넌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했지요. 산다는 것은 곧 죽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잘 살 수 있는데 죽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직시하지 않으니 인생의 소중함을 덜 깨닫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 명언을 남겼습니다.

스티브 잡스 ‘죽음은 인생 최고의 발명품’

세익스피어 ‘우리는 우리가 죽는 다는 것을 너무도 쉽게 잊는다’

간디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평생 살 것처럼 배워라’

이런 이유로 죽음에 대해 배우려면 ‘죽어 봐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해서 우리는 간접경험을 통해 배워야죠. ‘책’이라는 아주 좋은 도구를 통해서요. 전 약 부작용으로 한 참 아팠을 때 사후 경험까진 아니지만 죽음에 가까워지는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그때 죽음을 깨닫고, 어느 정도 회복 후에 그때 경험을 되살려 생각하며 배운 것이 많지요.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많은 독서를 통해 간접 경험을 하면서 다시 생각하고 배웠고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니 인생의 유한성을 깨닫게 되고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유한한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할까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죠.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선 쓸데 없는 생각 하지 말고 취직이나 해라, 책 보더니 엉뚱한 짓 한다 했지만 저는 분명 이런 고민들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고, 그게 옳았습니다. 5년쯤 고민후에 전 제 삶의 목표를 찾기 시작했고, 5년이 더 지나 그 목표의 상당수를 이루었거든요. 그리고 나니 그때 저를 비난하던 그 분들이 저를 인정하고 제게 배움을 청하고,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독서를 사실 20권 이상해도 좋은데, 처음에 너무 부담감이나 두려움을 느낄까 해서 인생, 꿈 관련 도서들과 묶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꿈이 무엇인지,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집중해서 생각 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Point\***

- 1) 인생,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한다. 낯설고 당황스런 것이 되면 안 된다.
- 2)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나?’ 질문을 처음 접해서 답을 못한다면 괜찮지만 이 질문을 보고도 반 년 뒤에 전혀 답의 진전이 없다면 인생을 낭비한 것을 뜻한다.

### **3) 시간관리**

인생과 죽음에 대해 집중 독서를 해서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았다면 인생을 관리해야죠. 그런데 인생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래서 시간을 관리해야 하니 시간 관리에 대해 배워야지요. 제가 처음 시간 관리에 대해 배운 것은 2007년쯤이에요.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와서 ‘알고 있다’ 생각했었는데 책을 읽어나가면서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 였단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관리책을 20권 정도 읽으니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이 소중하구나를 알 수 있었지요. 50권, 100권을 넘게 보다보니 '시간이 금보다 더 귀하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금, 돈은 써 버려도 다시 벌면 되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죠. 그걸 깨닫고 나니 '1시간 쯤이야, 10분쯤이야' 하던 생각이 없어지고 10분, 1분, 1초를 체감하여 소중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시간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낭비되는 시간이 많은 채 하루를 보내도, 다음 날이면 또 하루가 주어진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 스케줄러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메모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일들은 꼭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서 실행하고 반성하는 습관이 생겼고요. (수첩 관리, 메모에 관한 책도 30여권 이상씩 읽었습니다. ) 그런 덕에 투병에 수 년을 보내느라 사회 시작이 늦었지만, 건강관리(에 하루 6시간 이상 소비해야 했음.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독서, 내 영어 학습, 영어강의, 학원운영, 책 집필, 연애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종종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 관리를 하는 이유는 '바쁘게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1분 1초를 아끼며 타이트하게 정신없게 살려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유한성을 인식했으니 그 유한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후회없이 쓰기 위함입니다. 일이 많아도 시간 관리를 잘 하면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만 시간이 없는 삶은 원하지 않아요. 시간은 많지만 돈이 없는 것도 싫고요. 둘 다 여유있는 삶을 살기 위해 3) 시간 관리를 배워야 하고 다음 챕터에서 다룰 4) 행복한 부자를 배워야 하겠지요.

#### 4) 행복한 아름다운 부자

제가 '행복한 아름다운 부자'란 단어를 언급하면 '부자와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어울리나요?' 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만큼 '부'와 그것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남을 짓밟고 부를 형성한 부자들의 이야기를 접해서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부자들이 부러운 데 부자가 아니니 부러워서 일수도 있습니다. 전 어렸을 적엔 여유있게 자랐지만 제가 투병할 적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빚이 몇 억 있었어요. 하루에 3끼를 먹지 못 했고, 100원이 모자라서 라면을 못 사서 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가난을 탈출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자들 책을 열심히 봤는데 처음엔 종종 '나쁜 부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제가 책을 고르는 방법도 몰랐고, 부자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그런 책을 골랐던 것인데요. 그런 책에선 말하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남들 다 신경쓰며 부를 가질 순 없다. 기회다 싶으면 남들도 짓밟으며 부를 쟁취해야 한다. 그리고 나면 결국 남도 나를 따라온다.' 이런 부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부자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지만 그런 부자는 제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름다운 부자', '선한 부자' 의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책에선 다른 내용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인격이 부자를 만든다.', '남에게 도움 되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 ; '내가 잘하는 일로 남을 도와라. 그럼 부자가 된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을 팔아라'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고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제 마음도 편했고 그런 부자가 되

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책을 썼습니다. 다행히 어느 정도 좋은 반응도 있어서 사람도 몰리고 돈도 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면서 다른 '선한 부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고, 책이 아닌 실제 선한 부자들의 만남을 통해 생생한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만나는 선한 부자분들은 만날 때마다 끊임 없이 뭔가 주려고 합니다. 제가 나쁜 부자들을 롤모델로 삼아 부자가 되었다면 경험하지 못 했겠죠! '부자니까 많이 주겠지!!' 하시는 독자님들이 있을텐데요. 그런 마인드를 고치기 위해 '행복한 부자'들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 접하는 겁니다. '내가 줄 게 뭐가 있어 난 마이너스 통장 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통장을 개설할 자기 이름도 가지고 있고 은행에 다녀올 수 있는 육체도 가지고 있겠죠. 육체만 멀쩡히 있어도 주위에 도움 줄 것이 많습니다. 살아만 있어도 좋은 생각을 주위에 전할 수 있고요. 그런 작은 것부터 주다보면 선순환이 만들어져서 부자가 될 기회가 생깁니다.

독자님은 제가 10억을 준다면 목숨을 제게 파실건가요? 팔이나 다리 하나를 주실래요? 아마 그렇지 않을거예요. 왜? 10억보다 내 팔 다리나 목숨이 소중하잖아요? 그런 소중한 목숨을 우리는 지불한 것 없이 받았습니다. 선물 받았지요. 그래서 전 우리가 태어나면서 빛진 (감사한 빛) 인생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받은 재능들이 있지요. 일부 독자님들은 아직 자기 재능을 못 찾은 경우도 있겠지만 재능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 재능을 못 알아보고 있거나 작다고 무시하고 있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요. 서로 재능이 다르다 보니 자신의 재능으로 남을 도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게 육체와 생명을 선물 받았고, 재능도 몇 가지씩 받았지요. 그렇게 받은 것들을 가지고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더해서' 서로를 돕다 보면 시너지가 나는 것이고, 거기서 감사의 뜻으로 돈이라는 '교환권'이 이동되다 보면 부의 선순환이 만들어 지는 것이죠. 제가 배워온 행복한 부자가 되는 원리입니다. 돈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돈은 단지 교환권이에요. 물물교환을 하다 불편해서 돈이 만들어 진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짧게 정리하기엔 지면의 한계가 있으니 직접 20권 독서를 하시면서 더 많이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 5-5) 일 잘하기

1) 나는 할 수 있다! 마인드를 배웠고 2) 인생의 유한성을 깨달아 3) 시간 관리법을 익히고 4) 행복한 부자를 만나 롤모델을 확인했으니 이제 실제 일 잘하는 법을 배워야죠! '열심히 하루종일 일만 하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는 불평하는 분들이 있죠. 저런 말을 하는 분들께 '그럼 당신은 주위 사람들의 노력만 보고 인정하고 배우려고 한 적이 있는가?' 되묻고 싶네요. 원래 우리들은 결과를 보고 인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국가 대표분들 다 열심히 연습하지요. 직장인들 다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은 수많은 시간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인정 받나요? 노력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걸로 인정 받으려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성과를 내야죠. '샵질하네' 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헛노력을 빚대어 한 말이잖아요. 되는 방법이 놔두고 안 되는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니 안 되는 겁니다. 성과만 내면 된다는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5-4) 장에서 전 부자면 무조건 좋다 하지 않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인정 못 받으면 안타깝잖아요. 그게 싫은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으니 그 방식을 배워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왜 안 되는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못 내고 인정 못 받느냐는 거죠.

‘나는 내 스타일로 해서 성과를 내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자기 방법으로 해서 반 년 내지 2~3년을 해도 긍정적 변화가 없다면 방법이 틀리진 않았나 생각해 봐야겠어요. 분명 자기화라는 것이 필요하고,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방법이란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1) 시간 엄수하기
- 2) 청소, 정리 잘하기
- 3) 인사 잘하기
- 4) 상사가 묻기 전에 보고하기
- 5) 말할 수 있는 일만 말기 (거절 하는 법)
- 6) 그 일을 왜 하는지 원점에서 생각하기
- 7) 모르면 묻기
- 8) 불만이 아닌 개선점을 찾기
- 9) 미리 계획하고 일 하기
- 10) 남보다 하나를 더 한다.

등등이 있지요. 개인차가 있어서 위 사항들을 모두 자기화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참고해서 실행해보고 정말 나랑 안 맞는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 못하는 분들은 애초에 저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저런 건 (더 신경을 많이 써야하거나, 본인이 하기에 자신 없는 것) 내게 안 맞아! 하고 자신에게 편한 방법으로만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요. 일 잘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고하고, 시간 관리 하고, 글을 쓰고, 사람들을 대하고,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 담긴 책들을 20권 정도 읽다 보면 그 안에서 자기와 맞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아 이런 것들은 정말 계속 강조되는구나 꼭 해야겠구나!’ 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걸 해보시고 자기화 하면 일을 잘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면 ‘되는 방법’이니깐요. 한 마디로 정리하면 ‘잘하는 사람 따라하기!’ 가 되겠네요. 우리 좋은 따라쟁이가 되어요! (우린 어차피 누군가를 계속 따라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온전한 나만의 것은 존재하기 힘들잖아요?)

**-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노여워 말고 내게 능력이 없음을 돌아보라. - 논어**

\* 사실 이 5챕터의 내용들은 실천하는데 시간이 1년 가량 걸리지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읽으면서 ‘이런게 있구나’ 하고 봐 두시면 되고, 나중에 해내고 나서 다시 읽으시면 더 잘 이해, 정리 될 거예요. 요리 수업과도 같아요. 선생님이 시범 보이는 걸 보면 어려울 거 없고 알아 들은 것 같은데 ‘막상 내가 해보면’ 다르잖아요? 해보면서 시행착오 겪고, 잘 하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들으면 정리가 되지요!

## 5-6) 각 직업별 추천 분야

위 시즌 1의 5분야는 거의 누구나에게 살면서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훈련 없이도 애초에 타고났거나 환경의 영향으로 1)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정신으로 이미 해내고 있는 일이 많고 2) 인생을 소중하게 후회 없이 살고 있고 3) 시간 관리도 현명하게 해서 일과 놀이의 균형도 맞춰져 있고 4) 좋은 인생 롤모델도 주위에 많아서 재정도 여유있고 그걸 나눌 줄도 알고 5) 일에서 잘 성과를 내고 있어서 이미 훌륭한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위 목록을 생략하고 다른 분야의 독서를 하시면 되겠지요.

가끔 책을 읽지 않아도 자기 일을 잘 해내고 행복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접하곤 가수 싸이씨와 YG 양현석 대표님이 '책을 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해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그냥 살아가면서 자기 환경에서 스스로 잘 배워내거나, 주위에 배울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내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삶의 기술들을 잘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설명했듯 책에는 엄청난 시간, 노력이 축적된 노하우가 담기기 때문에 활용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위 기본 분야 이외에도

1 마음, 평화, 행복/ 2 자기 일 관련 (or 관심사) / 3 화술, 글쓰기 / 4 위인 / 5 인간관계 / 역사, 마케팅, 건강, 여행, 취미, 공부법, 독서법, 메모법, 우울증/ 슬럼프 극복, 내면 치유, 연애, 결혼 등 우리가 살면서 책(다른 이들이 시간과 경험을 투자해서 정리해놓은 것)을 통해 배우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주부 :** 육아, 자녀교육, 집안 정리, 행복한 결혼, 재테크, 투잡, 창업

**-직장인 :** 직장인 만을 위한 일 관련, 취미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자기 분야의 서적들

**-소상공인 :** 매출 수백억 이상의 큰 기업 경영서적 말고, 우리 동네 이웃 사장님들의 사업 노하우가 담긴 책들.

**-중견 기업 대표 :** 중견기업, 대기업 운영 노하우가 담긴 책들. 너무 일만 하시면 안 되니 삶의 여유를 배우는 책들.

**-학생 :** 공부법, 그런데 사실 현재까지 한국 공교육에 개선점이 많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에 15시간 동안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앨빈 토플러의 말입니다. 무조건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보다, 롤모델을 찾고 인생의 방향부터 잡아야 합니다. 꼭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될 친구들도 있고요. 공부법을 배우기 전에 인생 방향을

먼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성인들보다 더 일찍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더 기회가 많으니까요. 저도 제가 초중고에 다시 갈 수 있다면 어설프게 공부하는 척 하던 시간을 줄이고 차라리 연애와, 독서, 그리고 사회 경험을 일찍 하는데 시간을 쓸 것 같습니다.

## 5-7) 누구나 월 10권 이상의 독서가 가능한가?

보통 다른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누구나 가능하죠. 저도 월 1~2권을 시작으로 조금씩 늘리다 보니 월 5권, 10권, 20권 이상의 독서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이건 7년 넘는 투병 기간 동안에 연습한 겁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제가 처음 독서 할 때야 주위에 독서하는 분을 찾지 못 해서 월 5권 읽으면 많이 읽는 줄 알았습니다. 주위에도 월 5권 이상 읽는 분 찾기가 정말로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많지요. 제가 운영하는 모임에서도 월 5권 읽는 것은 그냥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게다가 제가 앞에서 여러 아이디어도 드렸잖아요? '친구야 언제 한 번 보자~' 하면 못 만나듯, 1 책과의 약속시간을 잡고, 2 앞에서 알려드린 집중력 높이는 팁들을 사용하면, 월 1권도 안 읽던 분들이 월 15권 정도까진 독서량을 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노하우가 쌓이면 물론 더 늘리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런데, 독서량 늘리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독서, 다시 말해 배움을 통해 나와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책만 많이 읽는 것으로 된다면 속독 가르치는 강사들은 다 엄청난 사람이 되겠네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저도 저보다 책 많이 읽는 분들을 종종 보지만 그 분들이 저보다 인생에서 좋은 변화를 만들어 내진 않았거든요. 책만 읽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책을 읽고, 내용을 잘 알고, 실천해서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목표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좋은 정보량이 늘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해서 기본 독서량을 권하는 겁니다. 왜 멀쩡한 사람에게 '어디 아픈 거 아냐? 안색이 안 좋네?' 소리를 5명, 10명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말 한다면 듣는 사람은 처음엔 '아니예요 괜찮아요!' 하더라도 점점 '진짜 내가 아픈가??!' 할 것이잖아요. 그런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자기관리든, 인생의 소중함이건, 시간관리든, 한 주제에 대해 여러 작가들이 계속 비슷한 정보를 주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많은 우리들은 부정적 세뇌가 되어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로 역세뇌를 하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라 했지요!

## 5-8) 20권 집중화 독서 성공 예시

### <불안장애를 극복하고 열정 기자가 된 임조은님의 사례>

착한 딸로 부모 뒷바라지하며 보냈던 20대

. 30대에 은퇴하신 아버지는 자영업을 하시다가 쫓겨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르바이트를 하셨고, 아버지는 배달일을 하다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오빠 의대등록금을 보태고자 알바를 3개 했습니다. 부모님

소원대로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불안증으로 심리상담을 받았지만, 1회 치료비 30여만 원, 60여만 원의 검사비를 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 지푸라기 심정으로 잡았던 것이 2달에 30만원이었던 독서코칭이었습니다.

1번째 도전: 상사 인터뷰 후 연봉 600만원 인상되다.

직장인이면, 내 일에서 우선 성과를 내라는 회일쌤 말씀이 있었습니다. 6년 내내 인사고과가 '중'이었기에 '나도 연봉인상이 가능할까?' 반신반의 했지만 상사인터뷰를 성공하셨던 독서코칭 수강생이 계셨기에 이 분을 먼저 인터뷰했습니다. 상사에게 어떻게 하면 나의 연봉이 인상이 될지 물었습니다. 상사인터뷰에서 저의 의지와 열정을 적극적으로 보여줬기에 상위부서 채용에 합격했습니다. 똑같은 8시간을 일하고, 매월 50만원을 더 벌게 되었습니다.

2번째 도전: 매월 추가수익 내고 누적 1천만원 기부하다

'이 기관에 기부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까?' 의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함을 행동으로 옮겨 월급의 일부를 기부했습니다. 더 많이 기부하고 싶어서, 추가수익 목표를 세웠고, 인터뷰 배수진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1회 zoom 모임에서 목표와 문행결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꾸준히 주 1~2회 인터뷰를 하다 보니, 인터뷰 관련 문의를 받게 되어, tip을 공유해드렸고 참여비를 높여나갔습니다. 1년동안 수익 70% 전액을 기부했고, 누적 기부금액이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3번째 도전: 독코 1년 치 교육의 총결산, 부동산 매수

독코를 하면서 가장 저를 성장시켜 준 계기였습니다. 부모님은 적금을 들으라고 했지만, 그렇게 30여년을 살았음에도 부자가 되지 못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자 회일쌤의 말에 따라 갭투자를 했습니다. 여러 부정적인 우려는 막상 저지르고 부딪혀 보니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매수 덕분에 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수익보다도 더 귀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4번째 도전 : 7년 만에 퇴사했고 2개월 만에 이직했습니다.

퇴사를 결정한 이유 3가지입니다. 1 안정적인 울타리 탈출 2 단순 반복 노동 하지 말자 3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 / 퇴사를 하더라도 '무슨 일이라도 난 해낼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밤새는 지도 모르게 인터뷰를 준비하고, 고민했던 저의 열정을 보며 언론사 취직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회일선생님께서 채용정보를 주신 곳으로 이직 성공했습니다. 1년 동안 인터뷰 모임을 운영하는 열정과 60여명을 인터뷰했던 행동이 있었기에 관련학과 출신이 아니고 전문경력이 없어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 <신용불량자를 탈출하고, 내 집 마련을 한 최미희님 사례>

### -20권 집중화독서 하기 전

20년 1월 다니던 회사에서 일방적인 계약종료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빛이 있었고, 거주할 집이 마땅치 않았던 능력 없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년 7월 15일 시작한 독서코칭을 통해 발버둥 쳐도 일어나지 않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 **-20권 집중화독서를 해나가면서..**

### **1. 독서량의 변화**

한 달 2권에서 한 달 10권 이상 독서량이 늘어났습니다.

### **2. 비정기적 수입에서 고정적인 수익 창출**

일에 매뉴얼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블로그 교육을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독서를 시작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개선해서 꿈행부기 블로그 강사로 활동시작,  
좋은 강의로 성과를 내어드렸더니, 현재까지 약 200명 가량의 수강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 **3. 5개월 만에 첫 집 장만**

집중화 독서를 시작하기 불과 5개월 전 회사 기숙사에서 쫓겨난 후, 갈 곳이 없어 지인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 후 저는 수도권의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비결은 독서코칭 멘토의 조언을 믿고 행동한 결과였습니다.

### **4. 마케팅사 창업**

1인 프리랜서에서 20년 11월 마케팅사를 창업하고, 마케팅 대행 매출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 **5. 온라인 마켓 추가수익 창출**

21년 12월 온라인마켓 시작, 한 달 만에 1700만원 매출 달성.

목표를 정하고 믿고 행동한 만큼 수익이 생긴다는 멘토의 말을 믿고 도전한 결과 월 천만원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 **-20권 집중화 독서 결과 - 현재**

1.신용불량자 탈출 - 친구에게 진 5년 빚을 갚았습니다. 사기로 생겼던 빚을 모두 갚고, 신용불량자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2.월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는 1가지 일로도 제대로 못벌던 제가 현재 수익원이 5가지가 넘습니다.

모두 출퇴근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수익입니다.



## 6. 독서 후.

### 6-1) 독서의 절반은 독자가 만드는 것! 생각하고 행동하기!

책을 읽어도(배움이 있어도), 독자가 생각을 안 하거나(비판, 흠 잡기 같은 부정적 생각도 생각을 안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류의 긍정적이고 생산적 생각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했어도 행동에 옮겨야 변화가 생깁니다. 바꿔 말하면 독서 후에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삶이 나아질 수밖에 없단 거죠. 이 책은 일부 정보성 지식도 담겨 있지만 실제 해보고 깨달은 것을 많이 담아둔 지혜가 담긴 실용서라 생각합니다. 독자님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아 잘 읽었다!'라던지 '재밌었다!' 정도의 감상을 갖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꼭 행동해 보시길 바라요.

1. 한 번 부담 없이 쓱~ 쓱~ 읽어봐도 좋아요.
2. 읽으면서 와 닿는 구절이 있으면 줄을 치거나, 메모하고 암기해 보세요.
3. 자신의 생각(비판 말고 '배우고 실천할 점')을 책이나 수첩 등에 적어 보세요.
4.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삶이라는 실제상황에 적용해 보세요.
5.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고,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너무 실망 마시고 원인 분석을 해보세요.
6. 혼자서 답을 못 찾으면 전문가나 미리 해 본 이를 찾아 의견을 구하세요. (주위에 나와 비슷한, 답을 역시 모르는 이들에게 묻지 마세요. 그들도 몰라요.) 카페에 오셔서 질문 하셔도 좋아요.)
7. 일정 기간을 두고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내용들이 단순히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독자님이 실제 해내서 몸으로 경험한 것이 될 때까지 1~7번을 반복합니다.

실천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 노하우를 정리하고 있는 제가 지금까지 만든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드실 거예요. 인생 기본 분야와 자기 분야 전문 독서를 하고, 할 수 있으면 직접 전문가를 10명 이상 만나 배우고 행동으로 적용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어려우면 목표를 더 작게 나누면 됩니다. 이번 노하우 공유를 통해서도 더 많은 분들의 실제 체험, 결과를 들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 6-2) 재독의 힘을 깨닫는다면!?

'책을 봐도 금방 다 잊어요. 이래도 봐야 할까요?' 질문하기도 하지만, '그 책 3년 전에 이미 봤는데요. 그거 또 봐야 할까요?' 이런 무섭도록 교만한 태도도 많은 우리가 보이거든요. 책 내용 자체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겠지요. 그런데 그때 읽은 책의 내용이 다 기억 안 나는 것도 문제지만(당연하지만), 독서의 반은 독자가 완성 시킨다고 했죠? 책을 접하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

다. 그때나 지금이나 '난 다 알아'라고 생각하면 생각을 안 할 것이고 '이번 독서에선 내가 뭘 배우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접근하면 생각하고 배우게 되겠죠. '그 책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었지?' 한다면 다시 봐야겠고, '맞아. 자기 분야에 대해 여러 권의 독서를 하고 전문가를 만나랬지!' 기억을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아직 실천하지 않았다면, 다시 보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고, 행동으로 옮길 자극을 받아야죠.

제가 배움을 시작한 것, 독서를 시작한 것, 다시 말해 '제 무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은 이 재독의 필요성을 알게 되면서였습니다. 예전엔 한 번 봤던 책은 다시 읽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전에 봤던 책을 다시 보면서 '두렵지 않다면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문장을 접했는데 '이런 문장이 있었던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시작하고, 전에 봤던 책을 다시 볼 수 있던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년 만에 '책은 단지 생각거리를 줄 뿐이다. 가치를 만드는 나머지는 독자의 몫이다.'라는 문장이 제 머리를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봤던 책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지요. 요즘에는 데카르트 선생님의 '방법서설' 이란 책을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약 500년 전에 돌아가신 데카르트 선생님이 인류가 쌓아온 모든 지식과 지혜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하는 법등을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부족하여 5번째 강의를 듣고 있지만 아직 20%도 이해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선생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책'이라는 사물로 만나고 있는지라 제가 반복해서 강의를 청해도 빠짐없이 말해주시고 자기 전 아무 때나 불러도 강의해 주시네요.

####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현명한 자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데카르트-**

'현명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가 아니라 '대화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선 학교에서 선생님과 대화하기 보단 주로 듣고만 있지요. 진짜 궁금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왜 듣는지도 모르는 소리 들을 수년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책을 접하면서도 대화(생각)를 잘 안 해왔지 싶네요. 이제는! 대화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책을 통해 대화하실 때는 눈치 볼 것 없이 반복 강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이 책도 여러 번 읽어보세요!

#### **6-3) 저자를 만나보지 않으면 반쪽 배움!**

책을 몇 권 내고 받게 된 메일 중에 상당수는 '진짜 작가님 책 읽고 실천하면 되나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책에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이라 그런 메일을 받는 것이 달갑지 않아서 대부분 답을 안 했었지요. '네 진짜예요. 돼요.' 이런 답장을 하루에 수차례씩 매일 해야 하려면 힘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 작가/ 강사분들을 만나고 다닐 때 많이 물어보긴 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요. 책을 통해 접하긴 했지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생각에 '직접 경험'을 하고픈 것이겠지요. 그렇게 많은 작가를 만나던 중에 '아 사람이 책을 쓴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전까진 나와 전혀 연관성을 찾지 못하여 '종이 뭉치'의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작가분들을 만나서 나누고, 경험하다 보니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그 책이더라고요. 이걸 깨닫고 몇 년 뒤에 가수 '토니안' 님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든 생각, '책으로만 접하던 작가분

을 직접 만날 때의 느낌!!' 그것처럼 TV에서 보던 분을 직접 만나는 그 신기함이!! 전에도 물론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본 적은 꽤 있었는데요. '왜 자꾸 책에다 해 놓은 말을 다시 묻는 거지?'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만나서였는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토니안님을 만나니 마음 안에서 '그 춤 좀 취주세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진짜 요청하기엔 어색한 거 같아서 말로 하진 않았지만 그때 이해되었습니다. TV도 책처럼 직접 경험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직접 경험을 더 원하는 거죠. 아무리 TV를 통해 여러 번 봤어도 TV는 TV입니다. 책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재독의 힘을 깨닫고 책의 내용을 100번, 1000번을 본 들 저자를 직접 만난 것과 느낌이 같을까요? 물론 만나서 책의 느낌보다 별로일 수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던 연예인이 마침 그 날 피곤해서 내 싸인 요청을 뿌리치면 상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저자에게도 상처 받고 실망할 순 있겠죠. 그러나 경험해 보지 않으면 책의 내용들이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잘 모르게 됩니다. 책만 보고 있으면 TV만 보고 있는 것과 비슷해지게 됩니다. (잠시 TV얘기를 하자면 TV는 책에 비해 더 수동적인 활동이라 보지 말라는 거지요. 생각을 더 안하게 되거든요. 물론 TV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켜놓고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책은 내가 고르고, 속도도 조절하고 훨씬 적극적이지요.) TV로 아무리 세계 명소의 여행지를 본 다한 들 직접 가보는 것만 하겠습니까? 연예인 따라다니듯 작가들을 좋다고 따라다니란 말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란 것을 경험해 보란 거지요. 물론 책에서는 들을 수 없는 독자님만을 위한 말도 들을 수 있겠지요. TV를 보다 좋은 곳이 있으면 가보고, 맛난 것이 보이면 직접 먹어보면 좋은 것처럼 책을 읽다 좋은 느낌이 들면 꼭 만나 보시길 권합니다. 최소한 메일이라도 보내보세요. 이를 통해 우물 밖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만남을 위한 팁도 정리해 볼게요.

### **1) 너무 유명한 분만 찾지 말 것**

메일이나 기타 방법으로 만남을 요청했는데, 답이 없거나 거절한다고 상처받거나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각 독자에게는 한 번 요청한 것이겠지만 저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만남 요청 중에 하나입니다. 직원이 10명인 사장님은 직원 한 분과 1시간씩만 얘기해도 하루가 모자란 것과 같아요. 신인 저자도 좋고 조금 언론에 노출됐지만 좋은 내용, 생각을 가진 책, 저자도 많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꼭 많이 팔린 책이라고 좋은 책은 아니거든요. 서점, 도서관의 구석진 곳에서도 독자님의 인생에 좋은 변화를 줄 책(저자의 편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 **2) 감사를 표하세요.**

논어에 공자님이 '육포 한 묶음이라도 가져오는 사람은 일단 질문에 답해주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배움을 요청하려면, 상대방이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는데 뭔가 저쪽에도 도움 될 것이 있어야지요. 물론 자신이 아는 것,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감사 표현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닫히기 마련이거든요. 무작정 만나 달라 하면 저자 입장에선 누군지도 모르는 데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간략한 자기소개를 하되 뭔가 매력을 어필해야지 않을까요?

### **3) 거절이 아니라 교환을 원치 않는 것**

만남 요청에 응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욕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길 가다 어떤 거지분이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내키지 않아서 피했다 쳐요. '이 거지 XX야 꺼져!!'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분은 그 자신의 인성 문제겠지요. 그러나 대다수 우리들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불편해서 피한다 생각합니다. 서로 자기가 판단하는 자신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교환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만원인데 상대방이 백 원을 가져와서 바꾸자 하니 응대를 안 하는 것이죠. (자신의 가치를 높거나, 낮게 착각하는 경우는 물론 많습니다.) 만남을 요청했는데 답이 없으면 상대가 내 가치를 몰라주거나, 내가 내 가치를 표현 못 했거나, 내 가치가 적거나 정도의 이유일 겁니다. 일단은 내가 책을 읽고 뭔가 가치를 느껴서 연락을 한 것이니 이쪽에서 맞춰야죠.

#### 6-4) 인생에 고통은 왜 있는가?

제가 제 무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생각 없이 살아 온걸까? 의심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한 고민 중 하나가 '왜 인생에 고통이 오는가'였습니다. 서점에서 '왜 착한 이에게 고통이 오는가?' 이런 제목의 책도 발견했었고요. (읽진 않았어요;) 왜 나는 그렇게 아팠어야 했는지, 왜 우리 집은 사업실패까지 해서 경제적 고통까지 겪어야 했는지, 왜 하필이면 다른 이들은 다 행복한 데(이것도 우물 안에 갇혀 있어서 그랬던거죠. 다른 가정을 본 적이 없으니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 나만 이런 건지 세상을 저주하면서도 답을 찾으려고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5년쯤 지나 좋은 답들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은 우리가 틀리게 행동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고통을 준다' 였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공부법을 바꿔보렴~!' 하고 알려주는 것이고, 사업에서 성과가 나질 않으면 '당신의 방법이 틀렸으니 다른 방법을 써 보세요'라고 알려준단 거예요. 인간 관계 등 삶의 모든 경우에서 그렇단 것이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잘 못 되었으니 다른 방법으로 바꾸라고 무한히 알려준단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오는 거지?!!' , 라던지 '열심히 하는 데 도대체 왜 이래??' 라는 질문 대신, '내 방법이 잘 못 되었나? 뭘 다르게 해 봐야 할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단 거죠.**

이것을 배우고 나서 저도 더 많은 변화를 시도했었고, 더 성과가 잘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큰 지혜를 갖게 되고 더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또 실수를 하면서 고통을 겪게 되지만요. 그 중에는 여전히 몇 년째 같은 고통을 겪는 것도 있습니다. 방법을 바꿔야 하는데 아직 제가 못 찾고 있거나, 바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겠죠.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전기 충격에 익숙해진 실험실의 쥐처럼,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스칼샘이 '인류의 모든 고통은 방안에서 가만히 생각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라고 말했나 봅니다. 그런데 '방법을 바꿔보세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도 이 장을 썼지만, 더 큰 개념 하나가 있어요.

왜 어떤 이들은 책을 많이 읽고 사람을 많이 만나 배움에도 시야가 덜 열리고 덜 배우난 거죠. 이것은 제가 지금껏 읽었던 3천여 권의 책에선 찾지 못했던 내용이고 제가 사람들을 관찰하다가 깨닫게

된 것인데요. 삶에서 어떠한 큰 고통을 겪으면, 자신을 크게 내려놓고 비워둘 기회가 된단 것이죠. 그것이 엄청난 지혜의 문으로 들어갈 시작점이 되는 듯합니다. 큰 고통을 겪어서 '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난 정말 작은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나를 비우게 되고, 다른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수들 중에서도 아무리 발성이 좋고 테크닉이 뛰어나도 나이가 어리거나 인생에 굴곡이 없으면 노래에서 느껴지는 어떤 깊이가 덜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인생의 배움도 동일한 것이겠죠. 삶에 큰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자신을 바닥까지 내려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 아무리 많은 책과 사람을 접해도 겉핥기식 배움만 하게 되어 '지식위주'의 배움을 하는 듯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 할 수 없어 시야도 자기 자신이나 가족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듯싶어요. 그래서 '재정이나 건강문제, 아니면 교도소 생활 중 한 가지를 겪어봐야 큰 사업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는 듯싶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의도치 않게 재정, 건강적으로 엄청난 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배움의 마음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고통이 너무 크기에, 권할 것도 아닌 거 같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비우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기에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을 어느 순간 이해는 하지만 '고통을 겪어보세요.' 라고는 쉽게 말하지 못하겠네요.

인생에서 고통을 겪지 않을 순 없겠지만, 일부러 고통을 겪으려고 노력까지 할 것을 권하진 못하겠지만, 최소한 고통이 오면 외부 탓을 하거나 외부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자신을 비우고 내 안에서 답을 찾아보는 자세. 이것을 가져야겠죠. 그게 인생에서의 고통의 의미니까요. 그 의미를 못 찾으면 말 그대로 사고생만 죽도록 하고 얻는 것 없이 가는 것인데, 안타깝잖아요? 쓰러졌으면 뭐 하나 주워서 일어서야죠!

- 남이 쓴 책을 많이 읽어라.

남이 고생해서 얻은 지식을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자기발전을 이룰 수 있다. - 소크라테스-